

리행소창가



[해제]

이 작품은 대구·경북지역의 중년 여성이 지은 장편의 규방가사이다. 원 제목이 <리행소창가>라고 되어 있으나, 작품 전체의 주제적 측면에서 재구해 보면 ‘이행(異行)’ 혹은 ‘이향소창가(異鄉消暢歌)’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중년의 여성 작자가 한 곳에 머무른 상태가 아니라 대구를 중심으로 경산(慶山), 청도(靑道), 칠곡(七谷), 왜관(倭館) 등지에 있는 명소와 친지의 집을 순회하는 가운데서의 감흥과 함께 “여필중부” 또는 “불출규문”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중세시대 여성으로서의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은 작품이라고 하겠다. 불출규문의 관습 때문에 이미 출가한 자매 또는 친가의 가족 및 친구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딸을 출가시킨 어머니로서의 아쉬움과 한탄,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기대 등이 작품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작품에는 ‘시아버님’, ‘사돈’, ‘질부’에 이어 ‘덕호’ 등의 호칭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행성격이 가미된 규방가사의 전형 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작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들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사서삼경 외우고 문밖에 종사하며 각국풍도 열람하고 별승지에는 현판을 남겨두고 싶다.”고 했다. 작가는 이렇듯 여성으로서의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인근 지역의 누정이나 명소로 여행을 나섰는데, 소요대, 세심정, 육모대, 망화정, 용두소, 청신암 등이 그곳이다. 작품의 제작연대는 대략 1920년을 전후한 어느 해 봄날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품의 중간에 병신(丙申), 을묘(乙卯), 병진(丙辰), 경신(庚申), 임술(壬戌) 등의 간지(干支)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 “을묘년 춘초구일 속질남매 동행으로……한양성 도읍하여 오백년 예악문물 일조에 허사되고 외구천지 되었다는 말인가”의 내용은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년)에 대한 한탄으로 보이며, 작품 속의 을묘(乙卯), 경신(庚申), 임술(壬戌)은 각각 1915년, 1920년, 1922년이 된다. 그리고 병신년은 1896년으로 보이는데, 역시 작품에서 “병신년에 이르러 이십년 그 동안에 지금까지 몇 해인가 감구지회 새로워라”라고 하여 여기의 병신년을 1896년으로 보고 그로부터 20년은 1916년이 된다. 또한 이 작품의 작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한문과 중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식의 <적벽부>와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두보와 구양수 등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한글가사라 할지라도 작품에 사용된 어휘도 대체로 한자어가 지배하고 있다.

[원문]

리행소창가

어와외척 노소번님 이닉소회 들어보소
 천지만물 변화변승 귀한바 사람이라
 강유귀천 남녀분간 이안이 극분인가
 애잔한 아녀본분 이팔연 심금성쟁
 타문우귀 삼종법은 선현의 훈계신이
 뉘라셔 면하리요 부모의 태손양망
 오복겸전 창성하기 자여간 일반이라
 유무복이 가탈일닉 구로싱아 우리부모
 불초무생 이인야을 여자즉분 경계말습
 여공익스 균금하고 봉부모 사군족을
 가지가지 조심하여 타인이목 걸임업시

평심을 화락하기 고소지망 허심이라
 몽미한 심경이라 은스근스 뉘흔덕은
 전전금금 속엿더니 조물이 시기려가
 만수영위 헛시로다 지리한 인생고락
 완명이 부지하여 창낙가되 기후하야
 조선봉수 전가하고 일너길너 턱서하여
 종인부탁 하였시니 스무여한 안일년가
 퍽구광음 훌훌하고 무정세월 액륙마라
 헛불스 이연광이 오순이 금연이라
 이것저것 다던지고 만수여심 적고인이
 축처의 생심골병 첨새다병 심각함의
 사람의 새스일을 미리알이 뉘잇던고
 불망흔논 나의제아 생면한지 몇히런고
 류수갓은 일월이라 칠팔연 되엇구나
 앓받스람 인정선광 덕하며 부탁이요
 지면으로 오라말이 반갑고 감스하다
 저간스 걸임만아 초연피연 경영턴바
 이실아 저의형재 앵연간 완는고로
 퍽이쟁노 험한새태 유안하긔 척앵업늑
 금횡의 허송하면 하일하시 생봉하리
 동심집 출입함의 타문이라 허건마는
 우리로 말을하면 진외가도 밀성박시
 니외가도 밀성박시 천도산동 복지하야
 변화번성 창디문호 방이낙국 일가러니
 새족의 바년결늑 친족다음 외척이라
 원근이 그잇시며 무슨허물 기탄이리
 을묘중 춘초구일의 숙질남의 동행으로
 뒤구성중 드어가니 나날로 변한물색
 조화난축 무궁이요 열국인물 구경하니
 금목소조 참담하늑 우리조선 삼천강토
 한앵성 도읍하야 오백년 레악문물
 일조의 허시되고 외츄턴지 되단말가
 전일의 사로왕늑 놀랍고 두렵드니
 금번초횡 반가와라 벽역고함 가는기차
 나는비로 밋칠손야 경손점술 춤이요
 즈인첨 중화로다 석양이 못디여서
 청도싸 여기로다 인후다정 데부앵반
 교마을 신축하야 이십여리 중경와셔

피차안부 반긴후이 월색이 명랑하니
황혼이 빅주로다 동생안면 시급하여
흥치로 입승하니 여전면목 우리형재
상봉함이 꿈이로다
덜부들 각각뵈니 신면목이 첫듯하니
암전하신 슈암딕은 초면으로 동고갓치
뉴정무흠 관곡하늬 금일스 생각하니
부여쳐스 가소로다 심스월경 하엿시나
일일지정 이안잇가 형제일신 목을갈나
동서로 각분하여 일년일차 이년일차
생봉기회 못하온덜 지면도 적조흐니
동고천륜 가당인가 십여년 못뵈와서
총망하던 위앵속의 감회로 문후하니
암암하신 존안이요 강강하신 기력이라
잇난동안 조조미와 조모의 미진유한
허무시 터회하고 영결하적 흐려더니
턴신이 시기훈가 일월이 못다가서
몽미밭 일조간의 영낙고스 되단말가
부생의 스생유명 일장춘몽 가이업셔
무익비스 갈빨업셔 다정하신 벗님들
관후하고 긴착하스 노소간 부인싼님
유생중 관관흠미 일면여구 탐탐하늬
각각면면 다과주춘 관디팔염 불안하고
감스무등 그지업니 전일의 듯던소문
인정풍속 극선함은 덕히보니 넘치도다
노소로 축일담화 모윳기글 편당승히
일월이 류수갓고 소일이 선궁일니
춘복춘쥬 등산님수 구앵슈 경망귀요
풍호무우 육호기난 증섭의 영이귀라
씩마차 삼춘이라
조고로 명현달스 절셔로 질기시니
츨애연 도리원은 니청연의 노림이요
츨월명 적벽강은 소조첨 질김이라
불출규문 여조이라 숨춘호절 모라리요
쳐쳐곳곳 유벽승디
소요디 드러가셔 역역히 구경하니
창여구호 장한가스 궁장하고 소실하다
석일의 우리선비 막연의 기천형초

열친척 화슈노림 이마료 함기실겨
흥진비리 합담함을 식람마다 일가러니
병신연 헤아러미 이십연 그동안의
이작곳 멧히런고 감구지회 새로워라
가당한 외인이라 외조생의 적각이라
이안이 소중한가
경치조흔 만화정은 안전의 무비정물
송척오동 울밀하고 만화방창 촌광이라
호접이 편편하고 봉황칙학 념노낫닷
세심정 룽모디난 존존흔 수성으로
진금을 소멸하여 흥금이 생황하니
가려하고 절성할스 룽두소난 텃작이요
쥬슨이 기묘하다 전후좌우 버님형제
금수병풍 돌너치고 촛전의 구곡류수
근칙니 월류로서 장강활슈 되어인니
텃하낙앵 화려풍물 말로만 드러더니
청도낙앵 구경일니
만고문장 두조미난 시중성인 유전하고
청빈함스 니타릭은 시중천스 일너시니
원통하다 우리들도 남조로 천단하면
숨경새서 문방종스 기명한 이새기의
각국풍도 열낙하고 지명스기 기록하며
이러한 별승지의 현판이나 두릿하여
후일유전 하오거살
가탄일스 부여견문 아는것이 무엇신고
날마다 등산님수 도수장도 장관일니
편시춘광 무정하여 어나덧 모춘이라
동풍이 멀어지고 남풍사월 되단말가
각처의 모인니극 초팔일 기리로다
어나곳 지점인고 청손녹수 함요쳐의
경일망귀 하려하고 장막을 설치하여
쥬변한 오료지공 옥반구깁 함목이요
초초로 디작순빅 쟁쟁한초 할일이
금일은 단구로다 여흥이 미진턴가
영민할스 썸님니들 현철한 창원딕과
단아한 광곡딕과 아람다운 방지딕과
유순부덕 한지딕과 영오한 호기딕과
노림창동 권고로서 쥬소간 분쥬후고

활협인난 소연분닉 효우돈목 근본이요
 수신제가 정당이라 남의노인 공경일닉
 디설시 주선하여 순철일 닌정하고
 하쳐난션 장막이 스연광속 하는구나
 노소아동 나선길의 연소부인 압히서니
 면면이 아람턱도 운빈화안 고은자질
 월국항아 하강이요 언어동지 뉴수덕형
 티님티스 니도한듯 앓밧스람 소명조격
 만새명기 선호가규 여운진취 무궁일닉
 션창습 당도하니 경기도 기이하다
 녹음은 울밀하고 망망조난 평포한대
 좌편은 청손이요 뒤익난 광애이라
 중앙이 유벽하니 예의효친 불입일닉
 일은바 션경낙과 별유천지 이안인가
 굉장한 노림설창 슈익명 인히중의
 구면도 적지안코 신면도 태반이라
 온소잡고 술밧추니 육스쥬히 되엿도다
 초릭잇기 순빅하니 규률이 정당하고
 균평한 오료진지 은원이 돈무하닉
 쥬스하신 연소분닉 진평의 수단인가
 미스가 쥬밀함은 노소간 충도흐니
 환천희지 깃거운가 낭낭흔 우슴소리
 우는새 화답하니 남은흥 미미하여
 등산님수 하올적의 풍경이 쉬락하니
 형형색색 장관이라
 어부의 남은낙딕 원포익 느저잇고
 목동의 부는젓딕 소등의 도라운다
 우불여피 일은말숨 소열황제 조탄일세
 셔손익 낙조 압손익 밧쳐잇고
 저역연기 나는곳은 인가이 조밀하다
 화도중 안진몸이 우화등션 디는듯
 닌이러한 경채중의 지란갓흔 봉우들아
 전호후은 수창함은 솜싱의 솜밧기라
 우순광음 인간우고 오날와셔 생딕하닉
 우리비록 여조이딕 난정고스 앵두할가
 좌생을 돌너본니 소일지탄 닌는구나
 결연한 나의형재 동셔길 불참일세
 차악한 임시연형 언괴치 어이하리

몽미밭 금번횡지 작불생리 하자드이
 드구나 이노림의 여식이화 대단말가
 황흔이 재촉하니 보보전진 도라올적
 종일횡낙 미진하여 가다가 두로안자
 노소간 모던친구 남은정담 설화하고
 조질너레 청호오니 닉연기 쇠모지연
 바른결니 외족이라 초래로 인스하니
 면면이 선풍도골 동작이 단아하고
 언스도 과목하다 파좌하고 이러나셔
 섭보구희 도라보며 강변의 도착하니
 생생이 발근등축 마지려 오는도다
 전후로 불기고 발섭하고 건너오니
 이도또한 풍취인가 후일기염 되리로다
 망화정 드러오니 쥬인의 성덕으로
 쥬효가 낭자하니 윗생육 버려스니
 미진여횡 이음인가 영가무도 생호셔라
 순칠일애 반경색월 도중천 디엿도다
 각손귀가 섭섭더니 우문유람 반가와라
 취미생종 다소벗님 작반하고 가는길의
 박곡동 더러가셔 시기점 구경한후
 디비뭇 다다러니 흥금이 생황하다
 간관히 월영하니 일역이 다되엿니
 청신암 드으가니 니고나다 합장하고
 속소로 영점니 다과를 맞친후의
 석반이 드으온다 정결한 치소반찬
 괴화요초 행니로다 피곤이 조심하여
 각각취침 하였더니 난디업난 쇠복소리
 진세연분 기다렸니 조반후 큰절구경
 눈압히 늠흔집은 만세루 닛하다
 이십팔간 디식당이 웅장함도 웅장하다
 이천연 신라고찰 풍경은 예로잇니
 디웅전 바라보니 단청도 회황하다
 석가례 늠흔존상 몇천연 사적인고
 오뵝나한 드러가니 늠고나진 텡불들은
 형인이목 되난도다 좌우산천 버님형새
 회기산이 슈려하고 영야디 일흠늠다
 파스진경 첩효몸이 극낙세미 발분던고
 새간고락 헛던마암 운외션천 못첫도다

이목의 잠긴못슨 멀이서 지점하고
견흔의 늑흔성곽 갓가히 바라볼니
선원암액 슈이며 북딤암 황금수
빅통치 일흠조타 그남아 활화
오도조 다시나도 일편화모 어렵거던
하물며 천변박식 엇지형언 다하리요
달포경영 이구경을 원일견지 하였시나
턴령갓튼 축도지난 미리생각 극낙더니
횡중이 흥을도아 니왕노릇 이럿쏘다
문장시스 늑흔조최 류수쟁화 완객들도
명스딤천 조흔경을 세세관광 못하거든
이잔한 여횡으로 리행이 출타하여
손동원근 별구쳐을 곳곳마다 구경하고
운문거찰 보앗스니 완남타 하리로다
한흠소 벗님니여 솜춘삼하 그동안의
지가지우 탐탐하여 생종담화 소일이며
딤소스 작반하여 소창기회 몇번인고
문소연들 인스들리 빙옥지결 흠탄일니
천륜의정 일시생의 딜아들 지극성관
각미기 아조업셔 서일감을 이럿드니
출련이 기다러미 석아리스 언지런고
끼변의 천스세류 풍전의 청기하고
만손의 두견화난 봉이봉이 반개반소
은연한 춘이색이 적상심회 도으더니
어연간 춘풍이라
딤끼을 심각함의 일각이 여츄로다
미봄가절 비스친은 고인이 운하시니
가절이 불원일니 경연경세 우륜고남
세스을 돈망하고 오륙색 한유타가
리별을 당코보니 니온것시 첨희로다
우리형재 분슈작별 결연타 생강마라
형우한일 니업시나 너의재공 썩썩하니
원부모 이형재난 여지의 분분이요
척피강혜 첨망함은 원정인스 형이라
다각각 마인늑이 리별을 썰어하니
파스다병 너의괴질 부딤부딤 무병하여
빅연히로 동낙하고 유즈유손 스업하여
두렷한 노경봉늑 극낙으로 지내다가

순풍이 여의하면 생봉정담 하여볼가
형제작별 참담한중 친우정분 락막하디
슬푸다 손소벗님
턴우디소 우리봉착 처음잇고 후기업서
도라가 생각하면 그동안 질긴일은
침상편시 촛몽되고 조흔가절 새를짜라
춘풍드니 화기애와 추우오동 엽낙시의
각곳의 헛덧회포 어이하여 안심하리
중천의 썬기력이 항을지어 날아가며
지정하고 창망한들 호손이 증증하리
어딴로 지행하여 환몽을 붓치보리
명월이 낭낭하면 의형 암암하고
청풍이 소소하면 벗님생각 간절할덧
아모려나 일우소망 화손의 증징하여
미스전 불망하고 풍쳐라도 잇거들랑
셔신으로 반겨볼가
헛부고 그리워라 때아 닉동생아
우리등 다슈형제 소연실고 고고여생
비감중 혈혈심장 급기지면 촛촛성훈
예필중부 성훈으로 동셔타문 우기하여
성덕구택 복연중낙 부여의 생시로디
천륜의정 헛썬심회 갈수록 우심하다
슈연을 불이시탄 천원기수 그린회포
모부모 사형재의 액쟁을 살우다가
귀가한 심삭광음 편모슬하 다형때가
쥬야취슈 즐기다가 너의우예 다다러서
신소한풍 소삼한디 묵묵무어 손을난하
아연니 족별하니 익련함도 그지업고
와스츄감 새로디쳐 여천자의 우리션야
어나성경 늦기시고 이잔한 우리등을
니왕간 적연부지 절절미친 한이
면면흥중 여절이라
두로두로 감창지회 안수가 여우하나
근근이 참작하고 횡도랄 망견하니
신신찰난 너히형색 원부모 결연하나
천슈만복 셔리담아 복연이 귀송무지
횡호호이 가는모앵 막스무한 쾌활하나
우리모야 무용다여 골탕으로 앵륙할가

연연이 문슈별회 노액이승 늦기시니
불관한 우리인생 인정허비 죄송하다
삼일안생 하회편 구전즈시 뜨라오니
원노차장 무픽득달 후품성덕 너의구탁
흔흔관섭 면면창승 송성이 여류한이
다시옴 감송하다
그후발서 누순이라 평신이 악왕하니
경경행회 굼거운정 천고츄월 명낭활적
의의한 간운정스 낙낙운손 기딤첨망
오때야 면목성음 앙앙불망 그리워라
닉마음 이렬씩이 동서각분 나의형때
스행지회 엇더하며 생후처음 너의액심
엇지안심 지내난고
아모려나 때안안니 친생심과 이말고
존당의 뜻을밧즈 전전금금 조심하고
동동촉촉 효성하여 일생안낙 조흔소문
원근간 자자하기 여형의 혈륙이라
첫건친은 슈이할거시나 나의구귀정일이 불전하니
너랄다시 못보고갈일 이리결연 굿분액회
안섬못여 취상심이다
무익한 지리난설 즈연유출 고이하다
연이나 앵하이 돌닝하온디
연하와 중당사장 계옵서 연심슈태후
무손망왕 하오서 틱중경여 업스시며
존후사쟁 계옵서 변호심여 감닉오신중
그후첨손 아니시와 침슈등호 연행만안
밍근우려 나작하며 금고회활 후옵신
후품즈의 시로미거 용우너 일신을
빅흥물침 친여갓치 훈교탕정 하올일
황송감은이 여천이라 총시존전 즈의가
노흘사록 마스조심 지극봉효 후여라
천만과중 너도닉위분 평안무탈 식음다여
존전 성우랄 깃치지 아니며
몹시슈척든 모앵이 확실소님을 능당하는가
이리궁겁다
조유업손중 조석신흔 시실예나 아닌가
두로경경 윤기포적 이것신가 우습다
때부계서난 예한순 오실경영 후시난가

탁월순미 군즈지 만면진션 너의전정
만복이 무령화챙 하올일 이리깃부다
소틱각딕 안생이시며 구위각생 도절이
일안들 하시고각 소열낙민 울쳐업스며
예도 어마계서 외환은 안이시나
채설날도 숙으시고 더욱감흠 여지지
업스시니 이진두렵 기형은 못날노쇠
피팔노 갓흐신기력 비올적마다 울울검심
진성못 슬디업슨 우리들 생육가취의
만첩의 장이혈져 덧포 쇠하시인닷
죄탄탄이다
형님 님위분 추산고역중 겁겁슈척
중난난 나도 형재숙질 무스하나
차차 헛칠일 헛쑤고 소요담낙든
체실이적 아시항낙이 솜갓치 헛쑤다
나난 님월초육일 회구작정 어마형재
엇지씨쳐 도라셔며 각곳헛신 나의청영
하새월노 기회할고 두로생생 설흔액심
둘째업다 서가정도 덕소가 무침인식
회가거득 다행이나 손죄무속 심여들
절박슈란히 보이더나 이뵈무고 각신아득
안동청운 이간세 신도막왕 속절업시
셔혹 타인인덧 곳곳기우려 굵겹고
그리워라 허다소히 말만 남으나
단문성즈 못괴괴두어 자네나 몰아리라
여망은믹셔 님닉 틈평안낙 한고오
소식듯기 극망망이다 헛쑤고 한흠다
현때야 우리남미 오미불망 하난형서
아연작별 십육년 생이지정 이련섭섭
그시심스 피차일반이오 나흘광색 군의그람
헛쑤다 한을하리 이십연싱 아즈태
십새미만 고실여싱 다행다때 비락새월
미성전 두중능정 모손심의 천정호인
일등가 량택취성 혼동밀지 흥빅앵아
신훈광경 만스무한 새로이 새롭고
그동안 심여하미 춘몽이라
괘락히 헛쑤심회랑 실은 적요하고
빈방중혜 심스슈삭일 그곳을 유유첨망

다솔일형 무스입문 현구고 존전혜택
일월갓치 밧첫나가 심싱의 경경할초
염이일생 하회정 구전다시 드라니
평안니 님승호화 광성존전의 용손회덕
아는바 더욱넘쳐 연들못닉 이액다시옴
감송은혜
일필의 난기을분 리량의 포열기생
오때의 만복등취 쾌락신기
그러나 인성의달일 먼길비친 여희환형
육탈몹시 괴로와 괴로워보이더라 하니
굵겁고 못잇치나 이것도 일조극난
나날 미루다가 두어조 못치나
싱후처음 낙낙니가 행회역역 아연
연이나 추생목염 난낙하고 산고월벽
슈낙석 춘만물 완생비락 간쟁동흐니
헛썩다 여조유흥 원부모 니친약회
신구노소 일반이다 인생경역 비락진의
석아왕이 역역금아 닉스 식롭도다
무정한 구속광음 군의집 입문초의
현새스시 소아로 동기지열의 비락간생의
하야기이면 만스여생 무의무탁 호호가중
천신만고 역역발가 감창약회 둘째업다
아마나 기썩일 기온냉하온대 연하와
중당사쟁 계옵서 연심유후 침손지환
아니시와 턱중경여 나죽하신가
후덕하신 성덕 조인금새 무생하신줄
감송감송 존후척 형쟁계옵서 문슈심여후
여첨 아니시와 미압신용여 업스오신가
갈스록 티새후품 믹스탁정 조모의
줄빅업술덧 지극봉효 쫓디로 봉순지덕
일싱을 한가지 조흔소문
원원군도 금목닉외 쳐신후물 중평안다식
슈척옥면이 화화유실 존전성우 아니며
청쇠존하 무흥은익 아시설치 쾌락한가
만스미흠 불성지하여 가셔무비 난감할덧흐나
밋난바 존고은익 우습고
군의 지순한심덕 효형의 범 연할가
말맛스 어렵기 녀이지말고

믹스취품 탁정하여 평생여한을 더첨말꺼
나의소원이압 요스이 맹모님 누물씩으로
오실경 허년가 암암그립기 군의비승
소택각딕 무점능동 껏스장끼 근중살즈미
극낙인줄 직변든든 임술츄동 히우봉축이
도시 스익될줄 엇지 아라시리요
세세난축 선호딕 실망무익 셕셕허여
들이며 그밧괴문 각생안 안하시고
각쳐 껏스장 노경귀령 즐기신다더니
아즉계시며 한분 식고모 동경아니심
무익셕셕 외쳐 안신과 화동은
우리형부 동경 하섯덧 늘반갑고
이곳동생은 어마님 계압셔 허다심여
여환 근간은 조금 덜하시나
쟁시소진 허무익탁 군이기겨 단여오신후
몹시 괴로와보이고 간편츄스 슈슈단신
갈수록 기막혀 아즈다슈 형재되기
시급형형 어마니 식위가 갓다오고
덕촌딕 식아바님 오시여 억만사랑
조하보이고
문아다 속딜무앵 송아시시방 귀아자막난
즈거집이 갓다연가 우습고 점아막막
지식기 절절하와도 어렵고 만스귀함이
업스이시진
요동죽어 지나니 이것도 극난낙안의
딕소가 무침인식 빅방회 가전슈신
무광이념 기생익들 딕구집 단여가고
훈목딕 유신속포 도도간장 역역각쳐
아득허다 정스여출 여손이나 슈슈심신
단문다못 니네티딕평 평슈이재 편덧기원
명색 하인이나 한번부려 듯고저우나
추스방속 생의못 츄츄 밀우나
군의띵띵 앵쟁회모날 취가탄탄 청운은
아자바님 회갑이라 하인과 드라스나
우리난 활듯슬 못하고 이리답답하나
밧삭가중 괴변식역 나이스쥬라 한탄이압
사돈전 생쟁 기다리압든 셔군힉츄
문듯문듯 닷치시니

히포그리압든 움셔길 한업시 반기온후
구선과 스형씨만 목정찰탐 황홀반겨
여러순살 피오니 신구생환의 억만비극
촌장이 신증하솔 테상기력이 더침손환은
아니시나
절물축경의 살우난 심쟁이 익부여신이
심예아니 그러시리
천지 조물과 인생역육이 일채로고
타귀못 지지극탄 이로소이다
바든날이 신속하와 여아의 우예일자가
임박하오니 고예 난면이라 낙원생정
어저의 남미랄보나 기탄 당하오니
사재생스 이별익석 고쳐진 간장이
아모리 철석이오나 무부잔잉 한거살
니십연이 넘도록 기라며 일각불견
여승추로 녀이다가 어시호창 황한정
지난일 필의난기압고
고금역스 두로츄모 아모리 완장인들
정감쟁회 돌티업스오나
만복을 구스갓치실고 우리사돈 존하의
입문칙흙을 덤허 태평호화 극낙소문이나
쥬야츄슈 두로엣쑤압고 싱여탄식 이압나이다
연이오나 그간 슈순의춘일 재맹하온대
허다 억만구회 신증때후 만강하옵셔
침슈 재반이 일앵방스 하시와
외로오신 무광자황 저를 모시면
석회층출 하실일 역역울어와 이미찬스오며
슬전억첩 비황중 여어모 쯔여분
지안하옵셔 이전 심쟁이 적스오며
손악이요세 특이하온줄 고부분 싱익기절
유관관 귀교씨 평안노챙 심여적지
아니실덧
소딕의도 것사돈이 위분심여 신증일
안하옵시고 썬님 형재분 평안하오며
경신삭삭 안안하시와 시이신익려 업스오시고
귀문각신이 균안이시며 각쳐와 초손악식
삭삭하신가
별반 우의시로 초악흙음의 놀닉신여환

심여하시드니 쾌복되신가 이리 굶급스오니다
오사때난 근근 대병은 업스오나
초시 슈요하온 심장이 반급의씨여여
쥬쥬착 업더니다
슬하 돈의 남익재술 무스하오나
연기미정 하온것이 턱산걱정 액새전함
가침심의 모앵도 몹시환탈 조심되오며
손아눔 점점 산악괴품 장중구살
유관관 하오나 열증괴상 조심옵고
여야는 경여하압든 신예일즈박그 아모두셔업고
만스재마음 사성되로 되강도 갖지못하여
쥬의즈의 귀정의 걸이는마음 한정업고
저도몹시 슈척히 형용이 초취하온중
원노차쟁의 빗쳐가며 괴생괴생 할일남셔럽고
우리 스톤의 고손갓즈온 안목과
턱과소망의 니도하실일 원즈홍안 이로소이다
셔낭게서는 오신후 평안한 상봉함으로
무황슬하의 머무어 즐기시다가 갖치가시니
겨련섭섭 기전의 뵈송송 다시보올스록
옥골영풍과 만면진취 쟁닉 직화될기생
양증스랑합고 유관관초여 작일오니 반갑고
후품총전의 여천즈의랄 바다 미거일신이
무스이 즈나다가 칭면하니 기특기특
되가중즈부 생솔무고든든 명일노 환고하논닷
하오나 슈슈히 보이오며
각처와 친신은 아득 굶겁스오며
정스 여출이오나 슈슈심신 천만모압지못
이만 쥬리오며 원원도로어 만복천복을
가득이실고 무고익가셔
사돈 슬전의 만화방챙으로 즐기시오
범스허무 무무함을 천만 용셔하심과
돈의무스 회정고망 정성식물 속예오나
도로낙낙 가져가기 민망하와 전패하오니
스돈닉 섭섭하심과 재무안할 일일천천
걸이미 슷업스오며
여기어되지 아니오나 연천실유 고고생앵
아모교육업시 무무고촌 남의견문도 업셔고
안침시무 비취줄될 분인 유평언니

남복이달스 싱소한일 무미할듯 가려쳐
친여갓치 거두시며 타일보연 하올덧
것사돈전 생앵싱식 언득문이 흥화익영
윤씨참요 지변은 경달 하언이며
진야몽애가 방연 니십오외 산악기품과
사돈넉 적새여음이 어나곳 밋쳐
앵연디 닉외동셔분 참악 소즈며
종형재분 청춘요결 차악상기 위로쳐업스오며
광딕천지의 허다하오니 관비관억 하옵소서
기력안보 하옵소서
난분옥대 가횡노지 인도익 적지아니리
업습거든 하물며 우리사형씨 타별조의시로
고등학식을 외슈애익혀 쳡넉지망을 얼마쯤
하시다가 궁심지 지성넉지 못하여스니
각별통악 지원익들 분분하옵실일 우려와
한심절통한 말슴 위로하옵도 이적쳐연하오니
탐탐스의 범연하온덧 하오나
스때 싸우심신 싱불여스중 여그밋쳐
영성소쳐 천만금손아눔 귀호의 악기고
잔잉하온 심쟁이 세렴이 전혀업사와
이리쳐연 하오이다
연이오나 츠시숨춘 물식이 익회랄가
통하합느디 연하와 구회과손 아니시며
앵위분 기력이 만강 하옵셔
침슈 등절이 허무치 아니압고
적연안환 필시괘복 못되읍심 츠마놀랍습고
외탁탁 후품조의 시로미 거든여랄
그덧과외 초심훈 면마다 즈랑하오니
쌀둔어미 감은은혜 퍽골난망 이압고
밧스돈 계옵셔 저랄못내 사랑하압심
도로혀 무안무부 혈혈한거시 귀문으로
백새가앵을 일우오니
밧사돈 아니게시니 모여여한니 무궁하압드니
이저는 스재슈스로 하여도 여한이
업깃나이다
술전영교시 형재분 평안 하옵시며
연쟁중유익 농장의 즈미랄 엇지못해
심여 적지아니 심절박

정신은 삭삭하시며 언재로 환탁하시난가
철니원경의 반채지통 적막구회 가층하셔
술일역역 히미치 아니압고 만금손아
기층실 그덧 총명지화로온 기생유관
암암하실일 디택의도 숨디분 지안하신가
세월니왕 거복쳐쳐 식롭스와
엇지들 견디시난고 이리 무리오며
여의고루 하온것시
디소획 스톤니 후은혜택을 입스와
공후반석 이은줄 다행만스 잇치오이다
각쳐와 행문나역 니회 업스신잇가
두로공염 이로소이다
원쳐스제난 완악지인 니즈여 애고함을
기염구구 생활풍파 역경의 지난광음이
오륙지왜 여아의 썩을 일우고
아즈의 열미로 정한을 조곰잇고
만실보화를 바다 세월을 보나다가
일조의 낙정만익이 쳐리고 가슴이알파
잇칠슈 업스오나 스패 석은쟁위나
여면후오나 풍현더침 괴롭고 가탄
익롭소 스행시오 인세척연 아닌세월
이풍진 경역이 다심오니날 여분하오니
가통이 압슈하면 면형이만 이스니
앗쳐롭스오며 디가이드 동숙숙씨 환고일택
안낙경행 이압고 친문은 아득하오니
울도정스 무궁후오며 적스옴 여출이오나
우오심신 천초단문 괴괴두어줄 등하안침
이만 쥬리오이다
여아귀 가정일 금월 염스일
그날노 보닉시기 천만 바라오며
여망은 춘춘구회 신중 거나리옵셔
채상기력 안영후심과 여의정일 노니위
밧사돈 믹시고오기 천만원축 이로소이다
깃사돈전 생쟁석일 선선지체으로 익히듯잡고
항상성염이 범타지인의 다라 압던바
미거 돈의를 귀획이 결스하오나다
세식난축 탐탐스의 심생반축 하오나
단문소치로 척셔통신도 쳐연후오니 죄안하오이다

연이오나 만춘물색이 처처 식롭스온디
외롭스오신 채역이 일의만안 하옵셔
침슈 재반이 일맹만중 후옵시고
슬전영운 시니외분 허다 골물이
신중평안 하압시며
이적 농쟁의 조미랄 엇지못해
사형시 무손간장이 어나만 하옵시리
차마 위탁절박 만금영교시 평안
현문복가익완 정훈 예정일이 박근하시니
동상가액의 액서기락이 썩썩하실일 치하귀중
깃겁스오나 석스츄영 비흥생반 이실일
역역촌탁 희미치 아니오이다
소톡의도 사돈 앵위분 편침하시고
합시여디 남익분 평안하시며
셔군게셔도 평안선식 생디기풍이 슈척지
안니신가
만면진취 연기싸 어섯진숙 후온횡동
유관관 미거질둔후온 여아의 닥두전정이
괘낙무험 하올일 미리공생 귀중귀중
다시옴 깃부오이다
그밭 귀운 각생느리 안영하시고
가전딕 종형때분 귀령동경 하시난가
이리곰겁습고 디곡 안신삭삭 울도업스온가
죽전딕오면 초악 편친식하 역예총통
가이업스오며 청송은 고모쥬 환고반갑고
울적 슬푸오이다
초쳐스때난 중도천벌 미망귀인니 다여가취의
아득한 전정만스 두로 심여하로
기환시 업스온중 만금손아 놓싸지
원슈지 호의일코 골절알파 저리고존혹
앗갑고 분분스때 박덕하와 영성소쳐
금삭혈딕 준길진취로 은거 살앗기니
앙앙분분 후음이 하날을 썩칠딕
슈하들 면면육탈 아쳐롭고 디택환고든든
중동셔 무흥복역 깃부오며
도천 종식미노리 신명언극 한심
각쳐아덕 맛쌀의 귀가정일 반가오나
저희들그리 축스 망부지한 걸이고

여아는 구획입문 사돈니 후은해택을
입사와 반격갓치 지나다 도라와
이날 슈일갓고 은근행염 우섭고
명식 범절도 불스막심 하온중
저의 길둔함이고 금무생 후오니
스돈내 티과소망의 닉도 하실일
이리 무안참과 원즈훈안 이로소이다
스때이 다여스정을 존염하시기 천만잇나이다
닉여망은 하술 채생기역 안영이심과
만복디스 칠우신후 극호 쾌낙하심
원축축 부조허무 참식무안 하오이다
셔군 슈이 보나시기 바라나이다
아안님 전하실가 전전불망 그리워라
현미시야 우리 종남익 창연죽별이
유슈 광음의 거련일 이후이라
춘화 경물의 구획을 우어우어
노소분 성안이 경경 뵈옵고저
움과 생적연기 우리앵인 교밀유정회
호천일역 스생그립고 불망정회와 츠시현군의
만복훈일 길경 불원함을 외오셔
싱각 울적후고 억만교딕 삼춘화점
갓흘일 구경못해 절통 우습습
연이나 큰어마님 계옵셔 번스심여
즈황흥미신증 첩손환 아니시고 침슈덩효
여행강복 하옵셔
출유 성효의 익진용여 업스시며
호스귀익이 석회감상이 여승치 아니실닷
모여분 심한이 역역회미치 아니오며
식려귀테도 울침중 평안선식 옥부방용이
슈척지 아니신가
다정하신 빙즈혜질 무미지인 지극현우
후든일 고맙고 감스 무지하옵이
피부의 싹염즉후오며
형님니외분 호번골물이 신증 평안하시고
밤말집 무고하여 소획의도 총후분
안영하신가 두로궁금습 그위두로무고 각신연속
가전형님 오신다더니 오신가 궁겁습
츠쳐 일신은미셔 형때속딜 만길비염

중디병은 업스니 만행 이압고
허다정스 여손이나 여어곳 땡포나중
기괴 두어즈못이오 이능문고 안눌어
묵상정으로 보실가
초괴한 겹저구리 생척 입으실가불망
아오님전 답스생 우리중남익 셔면통신의
피촉안부랄 부쳐본적이 어나덧 이몸성생이라
각지 남북의 혼슈가 중첩하고
여디본분이 불출규문 하라는 셉관을
버셔나지 못하여 비록 일면지분은
업서시나 쉹티로 은근앙모불망 간절정회
항생 너리익 박혀스디 운종의익물
박정함 본성이며 지막단문 중다고
다익한 심화로 인유의정 도도훈일고
경의방황 천일광명을 아모 흥지업시
우슈돌탄으로 가석한 광음을 총거흐즈이
만시여후이라 인정인스랄 초릴겨을 엇지못해
영친식 견부군중 종생을 맛잡고
타별 성효로 통업눅기는 안정을외오
심분츄척 만고 혀렴이나 차마아연
무심치아여 무쌘셔 지라도 한번붓쳐
가득한 흥금을허터 앵인의 비렴을
화답하여 척당된 포석이나 하고시부나
불초지인 당돌이 인세 머무러
세식을 남과갓치하나
만장 슈운니 심훈을덥혀 세상만림이도시
부운유지라 인정지도랄 망연이 쉹닷지못해
촉쳐익 숙웁도 척횡위일고 인도명호익
미불열 심회무일 비탄중 출연본심이
깁회하여 곳곳기우려 인천척당 경경불망일분
유독 그곳을지점 현군의 불견안모와
권권후이랄 생생타 일가니랄 어더
생봉함을 원일 너이정원 호절익
우리 아즈마님 귀령 하압시며
입문 십지익 스모하옵던 존안을
첨비하와 억만즈이랄 일신의 담아
불성황공중 군의 안부도 디강듯잡고
병진 추동의 공교한 기회랄어여

만나지 못함을 우금것 한ㅎ던초
전월초상 천만여위 만쟁정곡 슈중의
홀집ㅎ미 황홀싯득하미 엇더타 하오리
탐탐열남의 솔덜곡진 식의도척 심쟁이
조연감동 되난듯이 불우목석 지인을
같지 아니시고 지극고 엄하스
만폭ㅎ월노 신근이 방문 하신일
다시옴 감스무지나 연이나 차신의익물
박정함을 니우쳐 무안춤식이 만면을덥허
구구한 발명 도쟁의 구변이라도
엇지능히 발명ㅎ긋 습셔후 어언간
환월이 날슈되도록 무가답간도 직시붓쳐
굼거온 마음을 익로치 못빅아웁은
가득하오나 우우심흔이 쟁쟁연무의 좀긴닷하여
성관없시 경영만ㅎ고 초일피일 오날까지
쳐연 무안무식 여러가지로 불민한죄랄
관홍하신 지감으로써 탁물과 ㅎ실는지
슈연이오나 무정한 세월이 유파지횡이라
어서 호삼춘승화절 만물이 화여ㅎ여
회인경식을 무한니 도으난되 연ㅎ사
아즈마님 계오셔 면물구회 신중되손귀환
아니옵셔 출타호심의 봉도초우 나죽하시고
편식전 니외분 번스기럼과 일편슬엄이신중
평안 부지하오셔 식스여일 약약괴롭지
아니신가
무익불우 심스오나 알들 불망이오며
유잉삭포 되신닷 신기 경식롭고
치하다시 업스오나 중되책임 두중신상
죽히 괴로오실가 어셔어셔 임삭되여
만연 기즈랄탄생 금싱첨화 되시기
원원이압
안향다형재분 평안 윤연신이 심여업스신가
면면속요 현철하신줄 탄복되오며
춘훈죽정 하신다드니 톱정ㅎ신난지 궁겁습고
어엇분귀여 니니무앵 충실의려쳐 아니시고
공생연기 심새가 죽호호도역 어슈되울덧
못가러쳐 걱정하시나 명문법가의 가정교육
모시의 유한지덕을 쏜바다 고씨숙여랄

앵두할거슨 위인도 임의 아는바니
과히겸스 마트시압 디톡문안과 각쳐속속
원여 업스오며 단정은 언재듯조신가
원통하압신 생생이 언마아니 가려겨시니
외오 조석제전의 억만셔름도 쫓쪼로
미혹들 못하시고 고고지한 엇지아니
그려시며 싱스부모님 한심 가이업습기
여시오나 불초지인을 밀우어 생각고
만만관회 하시옵
그러나 우리아조마님 금고의 회세하옵신정
득여음이 어나곳밋쳐 노경선후랄 밧구신고
이불촉 심쟁도 살들가이 업습거든
흐물며 조여분 디효지심 이리요
형님 여러 형때분 안식삭삭
쟁신틱 신앵엇더신고 조심심여 오즉하실가
초쳐니종은 미신기력디단 외환은 아니계압시나
일칭감감 영일이 향소 하압시이
불초쟁위나 초울용여 박밍을 임하온덧
싱탁익도 한마님유이고 슈체후 마앵감감
셔일갓스 오시이 두렵습고 살들조익
오리지 아니실가 여연을 울어와
한심 슬푸오며 부모님 계오셔
억첩심이 읍신중 무령부강 허압시나
신관적피 겁밧업습고 이탁탁천 몽이밧
식외조부 생환통박 가이 업스오며
어마님계셔 낙낙외오 임종효날 못하시고
각식유한 못견디흐신 존안 초마뵈울빅
아니오며 도령님 다남미분 편치못해
면면혈숙 증난난 아오귀령 황낙모조
이용이 암암그립고 스연 괴괴무안
두아조마님 솜갓치 단여 가신후
달포 막히오니 복회총앵 업스올썸
언마아니 가시난동안 각딕익 계시니
조석으로 빈오도 못하압고 선친중생
춤이차로 인순을써나 일시도 한가이믹셔
보압지못해 낫부고 낫부온하정 어나째
다시미와 여한을 풀어보을고
날이 만흠스록 낙막 복챙이오며

쉬미 사형재분 안식종종 깃부오나
신앵들타첩 못되신줄 민박민박
스절턱이도 총총분디 첨아니시고 이스경영
아마춘하간 쓰나실덧 미리허우려 기막히고
고란아즈마님 계셔도 슈이 회구하실덧
두로황낙 남손턱 뒤소턱 금안흐시와
원억하압신 동생을 몽미간 맛조오니
한심 늦겁습고 도동아즈마님 죽동항초
장구이 계시난덧 안셔방턱 원셔난세
일이 만흠사록 진몽을 분간못해
십팔연 인세 초로갓치 녹아진일
원앙불상 명민인격 더욱 앓갑고
병중그쳐 앵한유원 모롤이
송연불생 아즈마님 소조 가이업습고
다손도간 통신각턱 무첨 이시고
곽셔방턱 아즉잇난덧
출등범식 일모다 흠할것 할 것업스나
초연운익 불길심장이 온전치 아인소문
각별아연 훈이고 우낙익 마는결
곽곽위모 품성의 마인일이 아니라
하날이 사람을 니시턱 뒤소익운을
압압히 말연흐실적 그중 적죄악극
조난여조 지벌을 독당흐나는 천정운명
이거시라요
성곡아으님 귀령예와 솜갓치 단여가시나
순후덕용 미앵 잇치지 아니더이다
친신종종 하오나 일월이 오힐수록
허확식롭고 통곡 담스까지 맛잡고
복식이 여구이지 난속절 업사신
천췌고식 원통 슬푸고 이십전실모
고고여심 이리 문익탁신 한후
니정벽역익 가진풍파랄 적어 친식싱앵으로
불초막턱 편부생전 천고한을 깃치온일
절절죄탄 가슴가운디 웅결첨첨한 유한
어나씩 신설하여 후천타일의 앵당을
버적히 뵈오리요
초신도 근근지존하여 만인의 치스랄
감슈하오나 불길한 명슈랄 생각우우

쟁탄오닐랄 셔흐난닷

하일 하시이 죄명을 쾌탈하고

오룬이 단합되여 고고지한을 푸어빅어

빅일 명광을 남과갓치 디하올고

불초심장을 니우쳐 이탄박힌 원한만익이서

스로웃쳐져 일분싱염을 능히알슈 업스리

존전 박덕한일 명을 보존한들

무어식 영광이며 나이불효 천생이다

무생한 쟁천이 동시용납지 아니시니

부양천지의 인즈지명을 바날슈 업스니

존당의 기친죄악 만스쳐춤 무석이고

셜비의 유교랄 속절업시 저바린빅되어

구구 원한을 어나곳의 호소하고

초시풍난 미월야이 적적히 생각

이십오연 지난일이 역역히 발가

촌쟁을 어이난손난 탄식과 써어지난

안쉬 금할도리업고 세상만스 이저바리미

소원이나 불효침죄 될가오 활란여성을

강잉 즉위할분 구구소회 부모동심

도시이이난 모라실닷 불민 우인이나

아이의 먹은마음 불효함은 숨가어이

조물이 저히하고 쟁천이 미워하스

불척막심한 죄명을 천츄만시의 면할도리

업사니 나의죄난 오히여 맛당하나

셴성한 부모의 유체 날품슈한바

불효쥬목을 바다 만인의 욕언니

자연선향의 밋칠일 두로두로 심각하며

아무리 무식불통하고 불측 심쟁인들

엇치 여승하게습 총두지회 가슴의뭉쳐다가

지필을 디하미 지상업시 기록이역불민

것사돈전 생쟁 좌우도 갈나안즈

다과쥬진이 지스의 정분이 탐탐하고

성화를 숙문흐니 양모하미 구구하나

여형의 마인몸이 불출규문 습관으로

손슈가 종종흐고 익각이 망망한디

봉안생디 뜻을두허 세강말속 우리창칭

인세변화 난측이라 만물화려 마스부중

타관우섭 침소하나 동그앵가 생이됨과

초뵈을 접인하여 우리등 히우생봉
신우유정 탐탐스의 속왕속여 여일이
뵈연도 미즉다가 인지소옥 각각이라
불완불급 환고즉정 겨련낙막
우리정스 피초일반 악연쟁회 즉앵치못해
광취한 발조취가 존문을 다시초자
관관후의 우리스형 일야담낙 더하온후
악슈작별 생적연기 우리등이 여신에중
가지임이 낙지고 날다면하고 노경조유
형동으로 유스풍님을 도쳐마다 열람하여
초시미흠 정스랄 터회하올 액조도혹고
다만습시 형낙이라도 한순더할가 녀엇씨어
불신다마로 여의치못 심한괴탄을 억지귀어여온중
천만여위 사형 우의지극 유정이시로
부송식물 초마감스 도로 미안미안
타별스이랄 흠양호으나 우때의 박정지형은
무어라 발명할슈 업스오며
이맛 셔정이나마 통신코져 간절하오나
이곳단문 나중침의 밧기나 일싸라
지나올분 일별후 응신이 요연호오니
무익공회 마지아니올초 마춤달아쳐 형한다기
두어조 붓치오니 다아모려나 속기속닉
유슈지광 어시호중 동일기 여춘의
연일앵위분 변호심여신중 체후안영 후압셔
괴롭습지 아니신지 무익앙영은 경경불망이라
하일호풍이 지기지우 우리등이 쇠봉한낙의
미흠정회랄 터파하옵고
탐탐신우 교정이 만족하오니 후기망연하나
영교가 환고 단염하니 경춘김봉을
밋고 바라나이다
안항계오셔 씨로 봉열상감중 부안호신가
뵈옥호성 통분쟁탄 구곡에 어니여
은은한 성안빅은바 믹일 염닉의
상연잇지 못하오나 슈요궁달과 인가화익이
역천식라 탄지무억이니 금옥 귀조여길너
노경 조손여이나 남숫쫓 나설치호시고
조흔 악신이나 피초전하기 고망고망
슬전관중 영운 시닉외분 쳐신골물중

평안귀부 그덧출 어비생 하신줄
존퉁여운과 현형시용 조복을 하여
깃차여어 증반평운 나기이여 업스온지
면면보은 옥면암암 후오며 그뱃종완
지중느리 안상하압신지 두로 양모로소이다
친안 열낙하시와 시이신정스 나죽하신잇가
연스고액 퇴로퉁 쉼미퉁 생솔안낙후신가
스리로 기별하오이다
초저 스우때난 편식기역이 만안이신고
여전이 일앵든든 후오나 액역과세
능정완정못 십칠년 웅망 지옥이
명가 호문의 일등가량을 퉁망후오나
신우지가이 문호도 초술심난 하오이다
이뱃두로 무침타뭇 로형은 스숙낙씩
위황한경 생과생화 심우민망 액세지가
생봉하솔 번호중 허다이상 아연트니
저뎃뎃 눈후니 두로쳐 쟁심요통
석조 심심이 질부치위 골물
능당선미 아람화순 지덕만모 스랑후고
중시네 조복을 깃부오며 악증초초
그근괘경 요스이난 니외일실 화기깃쑤고
유관하나 이연후오이다
동생분 손전조심 디오며 각쳐미신과
친문아득 팔순편친 조모지연 굿부오며
허다말슴 산적하오나 단문오조 낙셔괴괴
이만 굿치압니
니여망은 귀술 안영하심과 다시생봉하사이다
형쥬전 동셔분 하렴후시고
춤뎃 뉘동셔 갖치보시압
스월망간 송봉을 가워 맛츄뎃하고
와셔마춤 기시의 왜관볼일이 잇셔
스월 십숨일 왜관을 가이
팔십이세 종고모가 슬하조식 명식업시
노경춤통중 날을만나 중시 셔회지발뭇
가기말여 구구쳐 업시 일쥬일만익
로히 두리고오면 형쥬가 오시드라도
혈마 십여일은 계시니 만나기랄
넉넉무여 할줄알고 놀다 가보니

쫓밧게 셔회통이 삭밭스경을 치고와
드나이 형님이오 셋든줄과 누춧간절이
차저시든 소문아연낙심 엇지다 형은하올고
솜을쑤어도 단정경물 잇지 못하난이
정스가 만번무흔하오니다시만날 인연이
이다지 소활할줄 엇지 쫓할빅리요
천금씩위를 노친들 이이 더하오며
친형때 온들 이이 지닉오릿가
가석가탄 멧가지로 난란익씩 진정못해
진즉마번 생셔나 속죄하고 저우나
친동으로 미친다시 만스가 급업시
지나올쑤 각색쇠딜 디생탐통 억지부러
환두싸귀 반편을 스키못 붓딤들슈업셔
이적느져 참과춤아 썩썩사
스무정무의 쫓가 되고보니 촛역불횡
명슈의 첨부한흥식나 하일 하시의
성안을 다시미와 남은정회랄 전달하올고
슈월전 참봉딤 다정 슈찰과
딘스형님 필적밧쫓와 탐탐신기 반갑습기
과연 형용치못 온아단정한 기생과
성즉통명한 심부가지 생의 유의한딤
직삼 숙시흐나 슈지 허쇠고
경경행모이 그하오며 촛시중하이 연흐와
딘스형님 닌외분 연심귀후 디단순절이나
업소오신가 요통익앵 불평하심 익탁무리압지못
오나바님 출입도 희소하신텐 이번못빅와
익둘풍후 유덕흐신존안 일생일 갓쫓와
지닉나이다
참봉형님기셔 쇠모기강이 촛중 왕환이며
구십편친을 칭이스별 노더나 손상여환이나
익소오셔 침슈여전 효쫓현부의 지승감지
봉효로 강건흐오시고
참봉딤 슝닉외분 호딤심여중 안영흐시며
갓집스람 온유혜질노 조석진티지절 눈익버엇고
그모친 평안흐운가 두루본인정 굵굵운
어마니닉외 골물중 평안티기 잇년가 유순부덕 심칭의 불망이오며
섭오평길 확실흐운가 풍슈지화 귀중
스낭한 마음 총앵못감아 난입학하여

과이 본가로보면 과거나 할 괴시오나
기세로 보면 상당한 일이라
조박이 분명하던듯 완아종형재 무앵흔온가
화용옥질이 삼삼 두쇠턱안신 조조드나시며
정호형님도 그나리시고 무침이신가 식식곰겁
스오며 다원턱 서가정 당연십다
귀져다여 조미로운소식 열낙이려쳐 업스신가
초세한 직딜언변 오막이 잊지못해
무가셔 쓰나을 턴편을 스지못염
나죽피운 인지염가지로 침노식듯 이언줄
존기넌모를 무미이알닷 영실안부 드어씨
가득한 소처의 저후나 흠족지못해
조모지심 알려함이어 스오며 출인한조적
이번 못만나 유감이웁갓 말턱간후
소문 드었는가 인생세간의 이합이
무생호문 썩썩한 일이오나
당시슈탄키난 그도또한 난감한 일이오며
이듯추예는 안밭일 침성치못 시진괴롭고
큰며나리 기다리든 텅기철속 유관하웁고
슈다조식들 무고 큰아히 삼월이상경
아즉미환못 잊치고 동기종반 무연든든하오나
조부초산 느껴 걱정이오며
싯지며나리 모여소식 달포격조 그림스오며
손교형때 무앵총혜 괴절립든 아니압고
쥬스턱 총절일 안넌일 침총석익
썩스지못 성중출납 도회활스로 못만나니
익를 아마 손조불점 잇는닷
다형셔간은 설역이오니 석일 흰혁가정
이슴분 스연지원 극통이온중 슈소동기도
스생간 허다연 그린회포오
쟁의창금이 셋돌고 션인릭들은 한국할기희못
연후오니 앙천쟁우익 초하 인지리요
유유한 포한이 골슈의 잊쳐신들
무어식 소용이시리요
웅문기벽익 손악기품 우리왕고 노새
천고하신 우리션인 높고김흐신 조익시로
유명이 몇말이건딕 이갓치 유우지아니시와
문호익 창앵함익 이심하온고

금번 그곳의가 형쥬니 횡낙을뵈오니
일편 탄복과 일편 감구지심이
명출 아모리나여
천지무궁 강능 무하지슈와 조손쟁성
식낙만동으로 누리시기날 특슈 하나이다
왜간은 종고모 소쳐난 한심하시나
두덜아조미 가득깃 먼먼 우리칙형
원통하신 설분일 익싱기나 하올넌지
총봉형재 잇썩길 잇거든 이미우한
인스나 초저면 생디설명 터파하올가
하나이다
형쥬요 가스하나 린들기난 미난이오나
당금 형쥬난 익덕이 겸전하시고
떼난 달성일우의 분슈업난 쳐지나
싱딧조가 못딧 이니말을 정할것업스니
평싱 소쟁이 궁담은 실흔인야라
초초로 존명을불봉 미안막심 이오나
용서하시기 바라오며
죽기전 닉친가로 알리고서 스나조조
아여현형의 후익 날져바리지 아니리라
적은아바님전 생살이 문안 알외압고
미거 후온것이 존전의 입문하와
총딧분 후은조의랄 밧좁고 적은아부님
기옵셔 귀영하와 몇날유연도 아니시고
홀홀이 썩나압신후 어나듯 삼 속이되오나
이맛스리 문후도 쳐연하오니 죄송하오이다
풍측광음은 홀홀하와 잇째 아부님회신니
박두하시니 망극식롭습고 지원통곡 술푸오이다
아모여 오시나 첨하곤기 의연하와
한마님 용연채역 속환마앵 감감침석익
위와후심 초초복생되옵셔 만위강영 후옵시와
택중경여 나죽하옵신이잇가
간절복모 구구하옵고 속부모님 앵위분
허다심여 신중 안영후옵셔 속침등효
여전만강 후압신이잇가 무익복염 간축하옵고
귀중야기 시다남미분 평안 후옵시고
딧딧의도 어마님 귀후 만안하

[현대역]

리행소창가

아!외척(外戚) 노소(老少)벗님 나의 소회(所懷) 들어보소
 천지만물(天地萬物) 번화번성(繁華繁盛) 귀한바 사람이라
 강유귀천(剛柔貴賤) 남녀분간(男女分揀) 이아니 나뉘인가
 애잔한 아녀자본분 이팔년 심규(深閨)1 성장(成長)
 타문우귀(他門于貴) 삼종법(三從法)2은 선현(先賢)의 훈계(訓戒)이니
 뉘라서 면하리요 부모의 태산앙망(泰山仰望)3
 오복겸전(五福兼全)4 창성(昌盛)하기 자녀(子女)간 일반이라
 유무복(有無福)이 가통(家統)이라 구로생아(劬勞生牙)5 우리부모
 불초무상(不肖無想) 나에게 여자본분 경계(警戒)말씀
 여공매사 근검(勤儉)하고 봉부모(奉父母) 사군자(事君子)를
 가지가지 조심하여 타인이목(他人耳目) 걸림없이
 평생을 화락(和樂)하고 고소지망(高所志望)6 하심이라
 몽매(蒙昧)한 심경이나 은사근사(隱事勤事)7 높은 덕을
 전전긍긍(戰戰兢兢) 삭였더니 조물이 시기하는가
 만사영위 허사(虛事)로다 지리한 인생고락(人生苦樂)
 완명(頑命)8이 부지(扶持)하여 창낙가되 겨우하여
 조선봉사(祖先奉祀)9 전가(傳家)하고 일러길러 택서(擇壻)10하여
 종인(從人)11부탁 하였으니 사무친 한 있으리오
 백구광음(白駒光陰) 훌훌하고12 무정세월 원망마라
 아별사 이연광(年光)13이 오순(五旬)14이 금년이라
 이것저것 다던지고 만사여생(萬死餘生)15 적고있으니
 촉처(觸處)16에 상심골병 침상다병 생각하며
 사람의 생사(生死)일을 미리알이 누구던가
 잊지못할 나의동생 상면(相面)한지 몇해던가
 유수(流水)같은 세월이라 칠팔년 되었구나
 안밖사람 인정성광 대하며 부탁이요
 지면(紙面)으로 오라는말 반갑고 감사하나
 저간사 걸림 많아 차년피년(此年彼年) 미루다가
 이즈음 우리형제(兄弟) 양년(兩年)간 찾아와서
 백리장로(百里長路) 험한세태 유관(遊觀)하기 측량(測量)없네
 금번행차 허송하면 하일하시 상봉(相逢)하리
 동생집 출입함이 타문(他門)17이라 하지만은
 우리로 말들하면 진외가(陳外家)18도 밀성박씨(密城朴氏)19
 내외가도 밀성박씨(密城朴氏) 청도산동쪽 복지(卜地)20하여
 번화번성 창대문호(暢大門戶)21 방외낙국(方外樂國)22 세우더니

사족(士族)의 바로곁에 친족다음 외족(外族)이라
 원근이 그있으며 무슨허물 기탄(忌憚)23할까
 을묘(乙卯)24년 춘초구일(春初九日)에 숙질남매(叔姪男妹)25 동행하여
 대구(大邱)성중 들어가니 나날이 변한 물색(物色)
 조화난측(造化難測)26 무궁이요 열국인물(列國人物)27 구경하니
 금목 소조(蕭條)28 참담하네 우리조선 삼천강토
 한양성(漢陽城) 도읍하여 오백년 예약문물
 일조(一朝)에 허사되고 외측천지(外側天地) 되단말인가
 전일에 서로 왕래(往來) 놀랍고 두렵더니
 금번 초행(初行) 반가워라 벽역고함 가는기차
 나는비록 밋칠손가 경산(慶山)29점출 참이요
 자인점 주화로다 석양이 못되어서
 청도(淸道)30땅 여기로다 인후 다정(多情) 제부(弟夫)양반
 교마(驕馬)31를 신칙(申飭)32하여 이십여리 중경(中徑)와서
 피차안부 반긴후에 월색이 명랑(明朗)하니
 황흔이 백주(白晝)로다 동생안면 시급하여
 흥치(興致)로 입승(入勝)하니 여전면목 우리형제
 상봉함이 꿈이로다
 질부(姪婦)들 각각보니 새얼굴이 서먹하네
 암전하신 수암덕은 초면으로 동기(同氣)같이
 유정물음 관곡(款曲)33하네 오늘와 생각하니
 부녀(婦女)처사 가소(可笑)로워 심사월경 하였으나
 일일지정 이아닌가 형제일신(兄弟一身) 몸을갈라
 동서로 각각나뉘어 일년일까 이년일까
 상봉기회 못얻고 지면(紙面)34도 적조(積阻)35하니
 동기 천륜(天倫) 가당한가 십여년 못만나서
 참망(僭妄)36하던 외양(外樣)속에 감회로 문후하니
 엄엄하신 존안(尊顏)37이요 강강(康強)38하신 기력이라
 있는동안 자주모여 자매(姊妹)에 미진유한
 흐뭇하게 털어내고 영결(永訣)39하직 하렸더니
 천신(天神)이 시기한가 한달이 못다가서
 몽매(夢寐)40밖 하루아침 영낙 고사(古事)41 되단말인가
 부생(浮生)42의 사생유명 일장춘몽(一場春夢) 가이없어
 무인비사 갈바없어 다정하신 벗님내들
 관후(寬厚)하고 긴착(緊着)43하다 노소간 부인과말
 유유상종 관관(觀觀)함이 일면여구(一面如舊)44 탐탐하네
 각각얼굴 다과주찬(茶菓酒饌)45 관대괄염 불안하고
 감사하기 그지없네 전일(前日)에 들던 소문

인정풍속 극성(極盛)함은 대해보니 넘치도다
 노소간 축일담화(逐日談話)46 모웃개걸47 편당승화(偏黨昇華)
 세월이 유수같고 소일함이 선궁(仙宮)같네
 춘복춘수(春服春愁)48 등산님수 구양수(歐陽脩)49의 경망귀요
 풍회무우(風懷無憂)50 하려함은 증점(曾點)51의 영의귀라
 때마침 삼춘(三春)이라
 자고로 명현달(名顯達)은 사절서(四節序)를 즐기시니
 춘야연(春夜宴) 도리원(桃李園)52은 이청연(李靑蓮)53의 놀음이요
 추월명(秋月明) 적벽강(赤壁江)은 소자침(蘇子瞻)54의 즐김이라
 불출규문(不出閨門)55 여자이나 삼춘호절(三春好節) 모르리요
 곳곳마다 유벽승지(有碧勝地)56
 소요대57 들어가서 역역(歷歷)58히 구경하니
 창여구호 장한가사 웅장(雄壯)하고 소실하다
 옛날의 우리선비 말년(末年)의 기천행차
 모든친척 화수(和酬)59놀음 이마로 함께즐겨
 흥진비래 화답함은 사람마다 일렀으니
 병신년(丙申年) 헤아리며 이십년 그동안에
 네작곳 몇해인가 감구지회(感舊之懷)60 새로워라
 가당한 위인이라 위조상에 적각이라
 이아니 소중한가
 경치좋은 만화정은 안전(眼前)에 무비경물
 송백오동 울밀(鬱密)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61 춘광이라
 호접(胡蝶)이 편편하고 봉황백학(鳳凰白鶴) 넘나드는듯
 세심정 육모대는 잔잔한 수성(水性)으로
 진금(塵襟)을 소멸하여 흉금(胸襟)이 시원하니
 가려(佳麗)62하고 절승(絶勝)63하다 용두소는 천작(天作)이요
 주산(主山)이 기묘하다 전후좌우 벌린 산세(山勢)
 금수병풍 둘러치고 촛전의 구곡유수(九曲流水)
 백리남짓 흘러들어 장강활수(長江活水)64 되어있네
 천하낙양(天下洛陽)65 화려풍물 말로만 들었더니
 청도낙양(靑道洛陽) 구경이로다
 만고문장 두자미(杜子美)66는 시중성인 유전하고
 천년학사 이태백(李太白)67은 시중천자라 하였으니
 원통하다 우리들도 남자(男子)로 태어났으면
 삼경사서(三經四書)68 문밖중사 개명(開明)한 이세계에
 각국풍도(各國風道) 열락하고 지명사기 기록하며
 이러한 별승지(別勝地)69에 현판이나 두려하여
 후일에 유전(遺傳)할것을

가탄일사 부의 견문(見聞) 아는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등산님수 도수장도(徒手壯途)70 장관이라
 편시춘광(片時春光) 무정하여 어느덧 모춘(暮春)이라
 동풍이 멀어지고 남풍사월(南風四月) 되었는가
 각처에서 모인손님 초파일(初八日)을 기리로다
 어느곳을 정했는가 청산녹수 있는곳에
 경일망귀(頃日望歸)71 하려하고 장막(帳幕)을 설치하여
 즉변한 오로지공 옥반구경 하였으며
 차차로 대작순배(對酌巡杯)72 장장한초 할일이
 오늘은 단구(短筥)73로다 남은흥이 미진턴가
 영민(英敏)하네 따님네들 현철(賢哲)한 창원덕과
 단아(端雅)한 광곡덕과 아름다운 방지덕과
 유순부덕(柔順婦德)74 한재덕과 영오(穎悟)75한 호계덕과
 노림창동 권고로서 주소(晝宵)76간 분주하고
 활협잇는 젊은사람 효우돈목(孝友敦睦)77 근본이요
 수신제가 정당이라 남의노인 공경하네
 대설시 주선하여 순철일 내정하고
 어느곳의 장막이 사연광속 하는구나
 노소아동 나선길에 젊은부인 앞에서니
 면면이 아름다워 운빈화안(雲鬢花顏)78 고운자질
 월국항아(月國姮娥)79 하강이요 언어동지 유순덕행
 태님태사 내도(來到)한듯 안박사람 소명자격
 만세명기 선호가국 여운진취(餘韻眞趣) 무궁하네
 선창숲에 당도하니 경개(景概)도 기이하다
 녹음은 울밀(鬱密)하고 방초는 평포(平鋪)80한대
 좌편은 청산(靑山)이요 뒤에는 광야(廣野)로다
 종앙이 푸르르니 예의효친(禮儀孝親) 불입이라
 이른바 선경낙지 별유천지(別有天地) 이아닌가
 굉장한 노림설창 수백명 인해(人海)중에
 구면도 적지 않고 신면도 태반이라
 소매잡고 술받치니 육산주해(肉山酒海)81 놀였구나
 차례잇기 순배(巡杯)하니 규율이 정당하고
 균평한 오로진지 은원(恩怨)이 돈무하니
 주사하신 젊은사람 진평은 수단인가
 매사에 주밀(周密)함은 노소(老少)간 한층더해
 환천희지(歡天喜地)82 즐거운가 낭낭(朗朗)83한 웃음소리
 우는새 화답하니 남은흥 미미하여
 등산님수 하올때에 풍경이 쇠락(衰落)84하니

형형색색(形形色色) 장관(壯觀)이라
 어부의 남은낙숫대 원포(園圃)85에 늦어있고
 목동의 부는피리 소등에 돌아온다
 우불여피 이른말씀 소열황제(昭烈皇帝)86 자탄일세
 서산에 지는낙조(落照) 앞산에 비쳐있고
 저녁연기 나는곳은 인가가 조밀(稠密)하다
 화도(畵圖)87중 앓은몸이 우화등선(羽化登仙)88 되는듯이
 내이러한 경치중의 지란(芝蘭)89같은 봉우(朋友)들아
 전호후응(前號後應) 수창(酬唱)90함은 삼생(三生)91의 꿈박이라
 우순광음 인간세상 오늘 와서 상대하네
 우리비록 여자이나 난정고사(蘭亭古事)92 양두(讓頭)93할까
 앓은자리 둘러보니 소일지탄(消日之嘆) 되는구나
 결연한 나의형제 동서(東西)길 불참일세
 차악한 임시변고 말로어찌 표현하리
 뜻밖의 금번행차 작불상리 하자더니
 더구나 이놀음에 여식이화 되었는가
 황혼이 재촉하니 보보전진(步步前進)94 돌아올때
 종일행락 미진하여 가다가 도로앉아
 노소간 모든친구 남은정담 이야기하고
 자질내례(子姪來禮)95 청하오니 나의연기(年紀) 쇠모지년
 바른쪽에 외족이라 차례로 인사하니
 면면이 선풍도골(仙風道骨)96 동작은 단아하고
 인사도 관곡(款曲)97하다 파좌(坡坐)하고 일어나서
 십보구회 돌아보며 강변에 도착하니
 생생이 밝은등촉 맞이하려 오는구나
 전후로 불밝히어 발섭(跋涉)98하고 건너오니
 이도또한 풍치인가 후일기억 되리로다
 망화정 들어오니 주인의 성덕(盛德)99으로
 주효(酒肴)100가 낭자(狼藉)101하며 윗생육(生肉) 벌렸으니
 미진여행(旅行) 이음인가 영감우조 생겨나네
 순칠월에 반경색월 중천(中天)에 떠있도다
 각산(各散)귀가 섭섭더니 우문유람(遊覽) 반가워라
 취미상종 다소벗님 작반(作伴)102하고 가는길에
 박곡동 들어가서 사기점(沙器店)103 구경한후
 대비뭇 다다르니 흥금이 시원하다
 간관히 월영(月影)104하니 일역(日域)105이 다되었네
 청신암 들어가니 이고나와 합장(合掌)하고
 속소로 영접하여 다과를 마친후에

석반이 들어온다 정결한 채소반찬
 기화요초(琪花瑤草) 향이로다 피곤이 점점심해
 각각취침 하였더니 난데없는 쇠북소리
 진세(塵世)연분 깨달았네 조반후 큰절구경
 눈앞에 높은집은 만세루 뚜렷하네
 이십팔간 대식당이 웅장(雄壯)하고 웅장하다
 이천년 신라고찰 풍경은 그대로고
 대웅전 바라보니 단청(丹青)106도 휘황(輝煌)107하다
 석가래(釋迦來)108 높은존상 몇천년 사적인가
 오백나한(五百羅漢) 들어가니 높고낮은 탕불들은
 형인이목(形人耳目) 되는구나 좌우산천 벌린형세
 회개산이 수려(秀麗)하고 영야대 이름높다
 파사진경(破邪進慶)109 처한몸이 극낙세계 발분턴고
 세간고락(世間苦樂) 헛된마음 하늘끝에 묻혔도다
 이목110이 잠간못을 멀리서 지점(指點)111하고
 견훤(甄萱)112의 높은성곽 가까이서 바라보네
 선원암약 쉬우며 북대암 황금수는
 백별통치 이름좋다 그나마 활화경치
 오도자 다시나도 일편화모 어렵거든
 하물며 천변박식(淺辯博識) 어찌 형언 다하리오
 달포113경영(經營) 이구경을 원하는날 보았으나
 천령(薦靈)114같은 축도지는 미리생각 극낙터니
 일행중에 흥을돈아 내왕(來往)함이 이월도다
 문장시사 높은자취 유수쟁화(流水爭話)115 완객(玩客)116들도
 명산대천 좋은경치 세세(細細)관광 못하거든
 애잔한 여행으로 이향(異鄉)117에 출타하여
 산동원근 별구처(別區處)118를 곳곳마다 구경하고
 운문거찰 보았으니 완남타 하리로다
 한흠소 벗님내여 삼춘삼하(三春三夏) 그동안에
 지기지우(知己之友)119 탐탐(耽耽)하여 상종담화 소일이며
 대소사 작반(作伴)120하여 소창(消暢)121기회 몇 번인가
 문소년들 인사도리 빙옥지결(氷玉至潔)122 흥탄일네
 천륜(天倫)의정 일실상에 질아들 지극성관
 객미가 아주없어 세월감을 잊었더니
 흘연이 깨달았네 지난날이 언제런가
 계변(溪邊)의 버드나무 바람앞에 청개(靑蓋)123하고
 만산의 두견화(杜鵑花)124는 봉마다 만개반소(滿開半燒)125
 은연(隱然)간 봄의색이 적상심회(積傷心懷)126 만들더니

어언간 추풍이라
 귀가(歸家)를 생각함에 일각이 여추(如秋)로다
 매봉가절(佳節) 뵈는사친(事親) 고인이 이르시니
 가절이 불원이네 경연경세 우륵기남
 세사를 돈망하고 오락색 한유(閒遊)하다
 이별을 당해보니 내가온것 처음이로다
 우리형제 분수작별(分手作別)127 결연타 생각마라
 형이한일 내없으나 아우의공 땃땃하니
 원부모 이형제는 여자의 본분(本分)이요
 적피강혜 침망(瞻望)함은 원정인사 형이라
 다각각 매인몸이 이별을 서러워하니
 파사다병(破邪多病) 너의기질 부디부디 무병하여
 백년해로 동락하고 유자유손 사업(事業)128하여
 뚜렷한 노경복낙 극락으로 지내다가
 순풍이 여의하면 상봉정담(相逢情談)129 하여볼까
 형제작별 참담한중 친우(親友)정분 낙막하네
 슬프다 우리벗님
 천우신조(天佑神助) 우리봉착(逢着)130 처음있고 후기없어
 돌아가 생각하면 그동안 즐긴일은
 침상편시(沈床片時) 춘몽되고 좋은가절 때를따라
 춘풍드니 화기(和氣)돌고 추우오동 엽낙시(葉落時)에
 각곳의 헛된회포 어이하어 안심하리
 중천에 뜯기러기 항(行)을지어 날아가며
 지정하고 창망(滄茫)131한들 호산(胡算)132이 중중(重重)하네
 어디로 지향(指向)하여 환몽을 벗쳐볼까
 명월이 낭랑(朗朗)133하면 의형이 암암하고
 청풍이 소소(疎疎)134하면 벗님생각 간절할듯
 아무려나 일우소망 화산이 중맹하여
 미사전 불망하고 풍치라도 있거들랑
 서신으로 반겨볼가
 반갑고 그리워라 동생아 내동생아
 우리등 다수형제 소연(騷然)135한 고고(苦苦)136여생
 비감중 혈혈성장(子子成長) 때가되면 차차성혼(成婚)
 여필종부(女必從夫) 성훈(聖訓)137으로 동서타문(他門) 우기하여
 성덕구택(成德舊宅)138 백년중락 부녀(婦女)의 생사로다
 천륜(天倫)의정 헛된심회 갈수록 더욱심해
 수연을 불이시탄 천원(天元)139기수 그린회포
 부모생각 형제생각 약정을 살리다가

귀가(歸嫁)140한 십삭광음(十朔光陰) 편모슬하 여러형제
주아취수(翠水)141 즐기다가 너의우애(友愛) 다다려서
신소한풍(汛掃寒風)142 소삼(蕭森)143한대 묵묵무어 손을놓고
갑자기 작별하니 애련함도 그지없고
와서추감 새로대해 여천자애 우리선아
어느성경(誠敬)144 느끼시고 애잔한 우리들을
왕래한적 있고없음 절절하게 맺힌한이
면면흉중(綿綿胸中)145 여전(如前)이라
두루두루 감창지회(感愴之懷)146 두손잡아 같이하고
근근이 참작(參酌)하고 가는길을 바라보니
신신찬란(新新燦爛)147 너의행색 한부모와 인연맺어
천수만복(天壽萬福)148 가득담아 백년이 죄송하네
웃으며 가는모양 만사무한(萬事無限) 쾌활하나
우리모두 무용다여 골탕으로 양육(養育)할가
연연이 문수(文殊)149별회 노약의승 느끼시니
무관한 우리인생 인정허비 죄송하다
삼일만 생활하면 옛날다시 따라오니
먼길차장 무패득달 후품성덕(厚品盛德)150 너의모습
기쁜관습 면면(綿綿)창승 찬양함이어 남은한
다시옴 감송(感頌)하다
그후벌써 수십일에 평신(平信)151이 도착하니
경경(耿耿)152행회 궁금한정 천고추월(千古秋月)153 밝았을때
애애한 간운정사 낙낙운산 기대첨망(期待瞻望)154
어느때나 얼굴목소리 잊지못해 그리워라
내마음 이럴때에 동서로떨어진 나의형제
사행지회(私幸之懷)155 어찌하며 생후처음 너의마음
어찌안심 지내는가
아무려나 때아나니 친어머님과 이말고
존당(尊堂)156의 뜻을따라 전전금금(戰戰兢兢)157 조심하고
동동촉촉(洞洞燭燭)158 효성하여 일생안낙(一生安樂) 좋은소문
원근간 자자하기 여형의 혈육(血肉)이라
첫건친은 쉽게하나 나의구경길 불선하니
너를다시 못보고갈일 이리결연 그뿐약회
안씼159못여며 취상심(傷心)이라
무익한 지리난설 자연유출 이상하다
그러나 양하여 돌냉하온대
그리하여 중당의 사장(查長)160께서 점점수태(愁態)161후
손자없음 망왕하시고 집안경여(慶餘)162 없으시며

존후(尊候)163의 사장께서 매번심려 감내하시나
 그후침손(添孫) 없으시어 침수중에도 계속되어
 만든우려(憂慮) 나직하며 지금고회(孤懷)할 하옵신
 후품자의(厚品慈意)164 시로미거 용우너 일신을
 백흥물물 친딸같이 훈교(訓敎)탕정 하올일
 황송감은(惶悚感恩) 하늘같아 총시존전 자의(慈意)가
 갈수록 말조심 지극봉효(至極奉孝) 하여라
 천만과중(千萬過重) 너의내외분 평안무탈 하리라
 존전(尊前)의 은총(恩寵)을 끼치지 아니며
 몹시수척한 모양이 손님을 능당하는가
 이리 궁금하도다
 조유(詔諭)165없는잠 조석신혼(朝夕晨昏)시 실레나 아닌가
 두루경경(耿耿)166 윤기(倫紀)포적 이것인가 우습다
 제부(弟婦)께서는 예한순 오실경영 하시는가
 탁월(卓越)순매 군자(君子)의 얼굴가득 너의앞날
 만복이 무량화창(無量和淸) 하올일 이리기쁘다
 소택각덕 안생(安生)167있으며 구위각생 도절이
 일아니들 하시고각 소열낙민을 처없으며
 예도 어머니께서 외환(外患)은 아니시나
 채설날도 숙으시고 더욱감홀 여지
 없으니 애신두렵기 형은못날 노쇠
 패팔노 같은신기력 뵈올때마다 울울(鬱鬱)168한마음
 진정 쓸데없는 우리들 길러내심에
 만첩(萬疊)169의 장(腸)이헐어
 더욱 쇠하신틀해
 죄송하오이다
 형님 내외분 추산고역중 겁겁(劫劫)170수척(瘦瘠)
 중난난에 나도 형제숙질(兄弟叔姪) 무사하니
 차차 헛된일 허망하여 소요담락(逍遙湛樂)171거든
 체실이때야 새행락(行樂)이 꿈같이 허망하다
 나는 내월초육일 회구(懷舊)172작정 어마형제
 어찌떨치고 돌아서며 각곳헛진 나의성영
 하세월에 기회(機會)하고 두루생생 서러운마음
 둘데업다 서가경도 대소가(大小家)의 무참인식
 회가거듭해 다행이나 손자무손 심려를
 절박수란(愁亂)173해 보이더나 이밖무고 각신(恪愼)아득
 안동청운이 간세신도 마구오감 속절없어
 설혹 타인인듯 곳곳기울여 궁금하고

그리워라 많은소회(所懷) 말만 남으나
 단문성자(短文成字) 못적어놓아 그대나 모르리라
 바라나니 내내모셔 태평안락(太平安樂) 하는건데
 소식듣기 극망(極忙)이며 허망하고 한없다
 지금이야 우리남매 오매불망(寤寐不忘) 하는모양
 아연작별(俄然作別)174 십육년 생애지정 애련섭섭175
 그런마음 피차일반이나 흠광색 그대그리움
 허망하다 한을하리 이십년생 이자태(姿態)
 십세미만 고실여생 다형다제 비락세월(悲樂歲月)
 미성전 두중능정 모손심에 천정호인
 일등가 양택(陽宅)취성 혼동밀지 행백양아
 시호광경 만사무한 새로이 새롭고
 그동안 십여하미 춘몽(春夢)이라
 쾌락히 허망한심회 실은 적요(寂寥)176하고
 빈방중에 몇날생각 그곳을 유유첨망(瞻望)177하고
 여러일행 무사입문 현구고(見舅姑)178 존전혜택
 일월(日月)같이 받쳤는가 심성의 경경할차
 염이일생 하회정 구전자시 들어가
 평안하게 입승호화 광성존전에 용손회덕
 아는바 더욱넘쳐 연들못내 이액다시움
 감송은혜
 일필(一筆)에 난기(難記)할뿐 리량의 포열기상
 이때의 만복등지 쾌락신기(快樂神奇)
 그러나 인생의달린 먼길비친 여행환형
 육탈몹시 괴로워 보이더라 하니
 궁금하고 못잊혀 이것도 일자로어려워
 나날이 미루다가 두어자 적으니
 생후처음 즐거워 가는길마다 아연(俄然)이나
 그러나 가을낙엽 떨어지고 산고월백(山高月白)
 수낙석 봄의만물 왕생비락(往生悲樂)간 창동하니
 허망하다 여자유행 한부모 이친약회
 신구노소 일반이라 인생경영 비락(悲樂)진의
 석아왕(昔我往)이 역력금아(歷歷今我) 내사 새롭도다
 무정한 구속광음(球速光陰)179 그대의집 입문(入門)초에
 현새사시 소아로 동기(同氣)지열 비락간생에
 하였으면 만사여생(萬死餘生)180 무의무탁 호호가중
 천신만고 역력히밝아 감창(感愴)181약회 돌데없다
 아마도 기추일에 기온양(醞釀)182 하는데

그리하여 중당사장이 연심(年深)183유후 침손지환
 아니시어택중경여(宅中慶餘) 나즉하신가
 후덕하신 성덕자애(盛德慈愛) 금세무상
 감송하고 존후친척(存候親戚) 형제께서 문수심여후
 여첨아니시어 모실마음 없으신가
 갈수록 치새후품 매사탁정(每事託情) 하온데
 즐바없을듯 지극봉효 뜻대로 봉순지덕(奉順之德)
 일생에 한가지 좋은소문
 원원군도 금옥내외(金玉內外) 처신함을 중평(衆評)안다
 수척한얼굴 화화유실 존전성우(聖佑)184 아니시며
 청쇠존하 무흥은혜 아시설치 쾌락한가
 만사미흡 불성하여 가서무비 난감할듯
 그러나 믿는바 존고은애(尊姑恩愛) 우습고
 그대의 지순한심덕 효행에 범연(汎然)185할가
 말처럼 어렵게 여기지말고
 매사취품 탁정하여 평생여한을 더하지말고
 나의 소원이요 요사이 어머님눈물땀으러
 오실경 □년가 암암그리워 그대의매순
 소택각덕 무첨능동 것사장(查丈)께서 근중살재미
 극락인줄 직변든든 임술(壬戌)186추동 해후봉착(邂逅逢着)187
 이렇게 사이될줄 어찌알수 있으리오
 세세난측(世世難測)188 선호덕 실망무익 섭섭하여
 들이며 그밖에 문각생안 안하시고
 각처의 것사장 노정(路程)구경 즐기신다더니
 아직계시며 한분새고모 동경(憧憬)아니해
 무익섭섭 외쳐안산(安信)과 화동(和同)은
 우리형부(兄夫) 동경하셨듯 늘반갑고
 이곳동생은 어머님께서 많은심려
 여환근간은 조금덜하나
 장시소진(消盡) 허무애탁 그대집에 다녀오신후
 몹시괴로워 보이고 간편추사 수수단신
 갈수록 기막혀 여자다수 형제되기
 시급급해 사위 다녀오고
 덕촌덕 시아버님 억만(億萬)사랑
 좋아보이고
 문아다 숙질(叔姪)무양 또다시 귀아주머니는
 자기집에 갔다와서 우습고 점아막막
 지새기 절절하여도 어렵고 만사귀함이

없으신데
오동죽어 지나니 이것도 극난난안에
대소가(大小家) 무정인식 백방회 가전수신
무광이넘어 기상아들 대구(大邱)집 다녀가고
한목택 유신삭포 도도간장 역력(歷歷各處)
아득하다 정사여출 이었으나 수수심신(心身)
단문다맛 내내대평 평수이재 편덧기원
명색(名色)이 하인이나한번 부려 보고자하나
추사방속 생애못해 차차 미루나
그대의면면(面面) 양장회포를 취가탄탄 청운은
아주버님 회갑(回甲)이라 하인과 들었으나
우리는 할일을 못하고 이리답답하나
바싹가중께 괴변사역 나의사주라 한탄(恨歎)하고
사돈전 성정(性情)기다리며 서군행차
문득닥치니
회포그리워 오는길 한없이 반갑고
구전과 사형(舍兄)189씨 만목정찰 황홀반겨
여러순삭(旬朔)190 이오니 신구생환 억만비극
존상이 신중하시어 체상기력(體狀氣力)191이 더침손환은
아니시나
절물(節物)192축경에 살았던 심정이 의무였으니
심려아니 그러시니
천지조물과 인생의 영육이 일체로고
타귀못해 지극한탄 이로다
받은날이 신속하여 여아의 우애일자가
임박하오니 고예 난면이요 낙원성정이라
어제의 남매를보나 기탁 당하오니
사재생사 이별애석(離別哀惜) 고쳐진 간장이
아무리 철석이오나 무부잔잉 한것을
이십년이 넘도록 기다리며 일각불견
여삼추로 여기다가 어시호창 황한정
지난일 필히남기고
고금역사 두루모아 아무리 완장(阮丈)193인들
정감정회 둘데없으나
만복(萬福)을 구산(九山)같이실고 우리사돈 존하의
입은백흥을 접하여 태평호화 극낙 소문이나
주야축수(晝夜祝手)194 두루두루 여쭙옵고 생애탄식 이오이다
그러나 그간수순(數旬)195의 춘일(春日)을 다시보아

허다한 억만구회중 체후만강(體候萬康) 하옵고
 침수(寢睡)재반이 일양(一樣)방사하여
 외로우신 무광사황 저를 모시면
 석회증출 하실일 역역물어와 이미찬사(讚辭)하며
 슬전억척 미황중 여어모 자녀(子女)분
 지안하오셔 애잔한심정을 적고있으며
 손악이오세 특이하온줄 그부분 생맥기절
 유관한 그곳의 평안한 노정(路程)에 심려(心慮)적지
 아니실듯
 소택에도 것사돈이 윗분심려 신중한일
 안하시고 따님 형제분 평안하오며
 경신(庚申)196삭삭 안안하시와 시이신의려 없으시고
 귀문(貴門)197각신이 균안(均安)198이며 각처와 초산안식
 삭삭하신가
 별반 우의로 차악흥음의 놀내신여환
 근심하더니 쾌차하신가 이리궁금 하오이다
 요사이나는 근근이 큰병은 없으나
 차시 수요하온 심장이 반곱에떠
 여줘주착 없더이다
 슬하의 남매제술(男妹諸率) 무사하오나
 연기미령(年期未寧)199 한것이 태산걱정 약새전하고
 가청심 모양 몹시걱정 조심되오며
 손자는 점점사내기품 장중구살
 엿보이나 열중괴상 조심하고
 여아는 경여하고 새로이 일자밖에 아무 두서(頭序)없고
 만사제마음 사성대로 대강도 같지못해
 주애자의 귀정(歸程)에 걸리는마음 한정없고
 저도 몹시수척해 형용(形容)이 초취(憔悴)하고
 먼길차쟁에 비쳐가며 고생고생활일 남서럽고
 우리 사돈의 높으신 안목(眼目)과
 태과 소망의 래도(來到)하실일 원자흥안이네
 서낭(墟郎)200께서 오신후 평안히 상봉함으로
 무항슬하(膝下)에 머물러 즐기다 같이가니
 가련섭섭 그전에뵈고 다시 볼수록
 옥골영풍(玉骨英風)201과 만면진취(滿面進就)202 장래재화(才華)203될 기상
 앙증사랑하고 유관(遊觀)204하여 어제오니 반갑고
 후품충전에 여천자애(如天慈愛)를 받은 미거일신(一身)이
 무사히 지내다가 상면(相面)하니 기특하다

대가종자부(宗子婦) 생솔무고든 명일에 환고하는듯
하오나 수수해보이며
각처와 친신(親信)은 아득히 궁금하오며
정사여출 이오나 수수한심신(心身) 천만□지못해
이만 줄이오며 원원도리어 만복천복(萬福千福)을
가득신고 무고에가서
사돈 슬전의 만화방창(萬化方暢)205으로 즐기시오
범사허무 무무함을 천만 용서(容恕)하고
돈의무사 회정(懷情)고망 정성식물 속하오나
도로낙락 가져가기 민망(憫惘)하여 전패하오니
사돈내 섭섭하심과 재무안할 일일천천
걸리는것 끝이없고
여기어디 아니오나 연천실유 고고생양
아무교육없이 무무고촌 남의견문(見聞)도 없으시고
안침시무 비취줄대 뿐인 유품언니
남보기달라 생소한일 무미할듯 가르쳐
친딸같이 거두시며 타일보면 하울듯
것사돈전 성양성식 언득문이 흥화애영
운씨참요(讖譏)206 지변은 경달(驚怛)207 하건이와
진야몽매(夢寐)간 방년(芳年)이 이십오에 사내기품과
사돈내 적새여음이 어느곳 미쳤으며
내외동서 참악소즈며
종형제분 청춘요절(靑春夭折) 차악상기 위로못하고
광대천지(廣大天地) 허다하니 관비관억 하옵소서
기력안보(氣力安保) 하옵소서
난분옥대 행노지인도 액객지 아니리
없거든 하물며 우리사형제 타별 자의시로
고등학식(高等學識)을 외수에 익혀 장래지망(將來之望)을 얼마쯤
하시다가 궁심지성 입지못해
각별통약 지원에들 분분할일 우려와
한심절통한 말씀위로도 아직 처연(悽然)하여
탐탐사의 범연하온듯 하오나
이때 다우심신 생불여사중 여기미쳐
영성소처 천만금손자 귀호의 아끼고
잔잉하온 심정에 세림이 전혀없어
이리처연 하오이다
그러나 이때삼춘(三春)의 물색이 애회(哀懷)랄가
통하였고 그리하여 구회(舊懷)와 아니시며

양위분 기력이 만강(萬康)하시어
침수등절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석연치 않아 필시 쾌복못됨 차마놀랍고
애탁하여 후품자애(厚品慈愛) 새로미거든 이를
그덧 과외초심하고 면마다 자랑하오니
딸둔어미 감은은혜 백골난망(白骨難忘) 이옵고
바깥사돈 저를못내 사랑해주심
무안하고 혈혈한것이 귀문으로
백세가양(百世家樣)을 일으키니
바깥사돈 아니계셔 모든여한(餘恨) 무궁하네
이제는 사재수사로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술전 영교시 형제분 평안(平安)하시며
연장중유의 농장(弄璋)208의 재미를 얻지못해
심려 적잡이 절박(切迫)하고
정신은 삭삭하시며 언제나 환택(還宅)209하시는가
천리원경(千里遠境)의 반채지통 적막구회 가층하시어
술일역역 희미치 아니하고 만금손아
기실그저 총명재화로운 기상(氣象)보고
암암하실일 대택에도 삼대분 평안하신가
세월(歲月)에 황거복 곳곳마다 새롭사와
어찌들 견디시는고 이리 물어오며
여의고루 하온것이
대소택(大小宅) 사돈의 후은혜택(厚恩惠澤)을 입어서
공후반석 이은줄 다행만사(多幸萬事) 잊혀지도다
각처와 행문나역 이회 없으시니까
두루 공염이로다
원처사제는 완악지인 이자여 애고함을
개염구구 생활풍파 역경의 지난광음(光陰)이
오륙재(五六載)에 여아(女兒)의 짝을 이루고
아자의 열매로 정한(情恨)을 조금잊고
만실보화(滿室寶貨)210를 받아 세월(歲月)을 보내다가
일조(一朝)에 낙정만맥이 저리고 가슴아파
잊혀질수 없으나 이때 석은쟁위나
여면하오나 풍천더침 괴롭고 가탄
외롭고 사형시오 인세백년(人世百年) 아닌세월
이풍진 경역이 다시오는날 여분하오니
가통(家統)이 압수하면 면형에만 있으니

애처롭사오며 대가(大家)에도 동숙숙씨 환고일택
 안락(安樂)경행(慶幸) 이옵고 친문(親聞)은 아득하오니
 울도정사 무궁(無窮)하오며 적사암 여출이오나
 우오심신 천초단문 여기두어줄 등하안침(燈下安枕)
 이만 줄이오이다
 야아(女兒)의 가정(家庭)일 금월 염사일
 그날노 보내시기 천만(千萬) 바라오며
 여망(餘望)211은 춘춘구회 신중 거느리시어
 체상기력(體狀氣力) 안녕하심과 여아의 정한일노
 바깥사돈 모셔오기 천만원축(千萬願祝)212 이로소이다
 깃사돈전 성정석일(性情昔日) 선고귀체로 익히듣고
 항상 성염이 못람들과 다르던바

미거 돈애를 귀택(貴宅)에 결사하오나
 세사난측(世事難測)213 탐탐사의 심성반측 하오나
 단문소치(短文召致)214로 척서통신도 처연하여 죄송하오이다
 연이오나 만춘물색(晩春物色)이 곳곳마다 새로운데
 외로우신 체력(體力)이 일양만안(一樣萬安) 하시어
 침수제반(諸般)이 일양만중(一樣萬重)215 하시고
 슬전영윤(膝前令胤) 시내외분 허다골물이
 신중평안(身中平安)216하고
 아직 농장(弄璋)217의 재미를 얻지못해
 향시 무손(無孫)간장이 얼마나 타시겠는가
 차마 의탁절박(依託切迫) 만금영교시 평안
 현문복가(懸門福家)218에 정훈 예정일이 박근(迫近)219하니
 동생집 액의액서 지락이 뗏뗏한일치하
 귀중기쁘고 석사추영 비흥생반 있을일
 역력한 촌탁(忸度)220이 희미하지 아니하네
 소택(小宅)에도 사돈 양위분 편참하시고
 합시여대 남매(男妹)분 평안하시며
 서군께서도 평안선식 장대기풍(壯大氣風)221이 수척지
 아니한가
 만면진취(滿面進就) 연기가 어서진숙(振肅)222한 행동
 유관 미거질둔(質鈍)223하온 여아의 내두(來頭)224 전정(前程)이
 쾌락무형 하울일 미리공생 귀중하고
 다시옵 기쁘오이다
 그밖에귀문(貴門)이 각생(各生)들 안녕하시고
 가전택 증형제(從兄弟)분 기령동경(憧憬)225 하시는가

이리궁금하고 대곡안신(安信)226 삭삭(數數)227 울도없는가
 죽전덕오면 편친시하(偏親侍下)228 역예침통
 가이없고 청송(靑松)229은 고모(姑母)집 반갑고
 울적슬퍼
 이곳 이때는 중도천별 미망귀인(未亡貴人)230이 다여가취의
 아득한전정(前程) 만사두루 심려(心慮)하리
 개환시 없는중 만금손아(萬金孫兒)231 들까지
 원수의 호의(好意)얕고 골절(骨節)은232 아파저리고
 간혹아깝고 분분(忿憤)233이때 박덕(薄德)하여 영성소처
 금삭혈맥 준길진취로 은거 살았으니
 앙앙분분(怏怏忿憤)234 하는것이 하늘을 깨칠듯이
 수하(手下)들 면면육탈 애처롭고 대택(大宅)환고든
 종동서(從同壻) 물음목역 기쁘오며
 도천의 종시누이 노래신명 언국한심
 각처아택 딸의 귀가정일(歸嫁定日) 반기오나
 저희들끼리 축사 망부지한(亡夫之恨)235 걸이고
 여아는 구택입문(舊宅入門) 사돈내 후은혜택을
 입어 반격같이 지내다 돌아와
 이날수일같고 은근행염 우선
 명색 범절(凡節)도 불사막심하고
 저의 질둔(質鈍)236함이고 금무생 하오니
 사돈의 태과소망(太過所望)의 내도(來到) 하실일
 이리 무안참괴(無顏慙愧)237 원자흥안 이로다
 이때에 모든사정을 존엄하시기 천만있고
 내여망은 하솔(下率)의 체상기력(體狀氣力) 안녕하심과
 만복대사(萬福大事) 치룬다음 극호쾌락 하기바라며
 부조허무 참색무안(慙色無顏)238 하오이다
 서군이나 빨리 보내시기 바라나이다
 아우님 보실가 전전불망(輾轉不忘)239 그리워라
 현매(賢妹)240시아 우리종남매(從男妹) 창연(愴然)241한 작별이
 유수광음(流水光陰)의 그런일 이후이라
 춘화경물의 구택(舊宅)을돌아
 노소분 성안(聖顏)242이 걱정되어 보고싶
 음과 생적연기 우리양인 교밀유정회
 호천일역 사생그립고 불망정회(不忘情懷)라 이때현군(賢君)의
 만복(萬福)한일 길경불원함을 외오서
 생각울적하고 억만(億萬)교대 삼춘화첩(三春花蝶)243
 같을일 구경못해 절통하고 우스웠으나

큰어머님께서 번사심려
자황흥미(雌黃興味)244 신중침손환 아니시고 침수정효
여행강복(旅行降福) 하소서
출유성효(出遊誠孝)에 애진용여 없으시며
호사귀애(好事貴愛)의 석회감상이 여승치 아니실듯
모녀(母女)분 심한(心恨)이 역력희미치 아니오며
시려귀체도 울침중 평안선식 옥부방용(玉膚芳容)245이
수척하지 아니한가
다정하신 빙자혜질(冰姿惠質)246 무미지인 지극현우
하던일고맙고 감사무지함
피부(皮膚)에 쌀엿으며
형님내외분 호번골물 신중(身中)이 평안하시고
밤말집 무고하며 소택에도 총후분
안녕하고 두루궁금하고 그위 두루무고 각신연속
가천형님 오신다더니 오신가 궁금하여
일신(一身)을외셔 형제숙질 만길비염
중대병은없으니 만행(萬幸)247이웁고
허다정사 여산이나 여러곳 땡포나
중재니 두어자 못이으니 능문(能文)248도 안늘어
묵상(默想)249으로 보실가
참괴(慙愧)250한 겹저고리 생척입으실가 불망(不忘)하고
아우님전 답사생 우리종남매 서면통신(書面通信)에
피차안부(彼此安否)를 부쳐본적 어느덧 이몸상생이라
각자 남북(南北)의 한수가 중첩(重疊)하고
여자본분(女子本分)이 불출규문(不出閨門) 하라는 습관(習慣)을
벗어나지 못하여 비록일면지분(一面之分)251은
없었으나 상대로 은근히 양모불망(仰慕不忘)252 간절정회
항상뇌리(腦裏)에 박혔으되 운중의마음
박정함 본성이며 지막단문중
다고다액한 성화로 인유의정 도도한일
경의방향 천일광명을 아무흥치없이
우수돌탄(憂愁咄嘆)253으로 애석한광음을 증거하자
만사나중이라 인정인사 차릴여유 얻지못해
영친새 건부군중 종생을 맡잡고
타별 성효로 통뭇느끼는 안정을외오
십분추척 만고하렴이나 차마아연
무심치않아 괜히져라도 한번부쳐
가득한 흉금(胸襟)을헤쳐 양인의 비렴을

화답하여 척당(戚黨)254포석(布石)255이나 하고싶으나
 불초지인(不肖之人) 당돌하게 인세(人世)에 머물러
 세식을 남과같이하네
 만장수운(愁雲)256이 심혼을덮어 세상만럼
 부운유재라 인정의도를 망연이 깨닫지 못하여
 숙맥(菽麥)257도적 행위일까 인도명호의
 미불열 심회무일 비탄(悲嘆)중 흘연본심이
 정회(情懷)하여 곳곳을 기울여 인친척(姻親戚)당 경경불망
 유독 그곳을지정 현군의 불견안모
 권권(拳拳)258후의 생생하게 일가를얻어
 상봉함을 원일 너의정원 호시절에
 우리아주머님 귀녕(歸寧)259 하오시며
 입문십재(入門十載)에 사모하던 존안(尊顏)을
 처음뵈어 억만자애를 일신의담아
 불경황공중 그대의안부 대강듣고
 병진(丙辰)년260 추동에 공교한 기회를얻어
 만나지 못함을 지금까지 한하던차
 전월초상 천만여위 만장정곡 수중에
 흠집할미 황홀셋득함 어떨다 하오리
 탐탐열남의 살달곡진 사의도척 심정이
 자연감동 되는듯이 불우목석(木石) 지인을
 같지 아니시고 지극하게 생각하여
 만폭하월로 신근이 방문하신일
 다시와 감사무지(感謝無止)라 그러나 자신의마음
 박정함을 뉘우쳐 무안참색이 만면을덮어
 구구(區區)261한 발명(發明)262도 다툼의 구변(口辯)263이라도
 어찌능히 발명하리오 삼서후 어언간
 환월(還月)의 날짜되어 무가답간(答簡)도 즉시부쳐
 궁금한 마음을 애뜻하게 못뵈옵은
 가득하오나 우우심혼(心魂)이 장생연무(烟霧)에 잠긴듯하여
 상관없이 경영만하고 차일피일(此日彼日) 오늘까지
 처연 무안무색 여러가지로 불민한죄를
 관홍(寬弘)264하신 귀감으로 탁물(託物)이나 하실런지
 수연이오나 무정한 세월이 유아지행이라
 이때 호삼춘승화절 만물이 화려하여
 회인(懷人)265경색을 무한히 도우는데 그리하여
 아주머님께서 면물구회 신중대손 귀환(歸還)
 아니해 출타효심에 봉도초우 나직하고

편시전내외 번사기령과 일편슬엄 있는데
평안부지해 식사여일 약약괴롭지
아니한가
무익한 불우심사 알뜰 불망(不忘)이오며
유임(有孕)266삭포(朔布)267 되신듯해 신기경사
치하다시없으나 중대책임 두중신상
얼마나 괴로우실까 어서어서 임삭(臨朔)268되어
만년기자(祈子) 탄생하여 금상첨화 되시기
원원(願願)이
바라나이다 형제분 평안윤연(潤然)하니 심려 없으신가
면면속요 현철(賢哲)하심 탄복(歎服)269 되오며
춘춘작정 한다더니 택정(擇定)했는지 궁급하고
어여쁘고 귀여워 내내무양(撫養)270 충실려처(麗處) 아니시고
공생연기 십세가 작호도역 어수되올듯
못가르쳐 걱정하시나 명문법가(名門法家)의 가정교육
모시(某時)에 유한지덕(由限之德)을 본받아 숙여를
양두할것은 위인도 이미아는바라
과히겸사 말으시고 대택문안과 각처삭삭
원이없어 단정은 언제나 들을것인가
원통하신 생생이 얼마아니 가려하니
외오나 조석(朝夕)제전의 억만설움도 뜻대로
미혹(迷惑)들 못하시고 고고지한(孤苦之恨) 어찌아니
그러시며 생사부모님 한심가여워
여새오나 불초지인을 미루어 생각고만
관회하시고
그러나 우리아주머님 금고에 회세하신정
특여음이 어느곳미쳐 노정선후(路程先後)를 바꾸신가
이리도 불측심정(不測心情) 살들가이 없었거든
하물며 자녀분 대효지심(大孝之心) 이리요
형님 여러 형제분 안신삭삭(安身數數)
정선택신앙 어떠시고 조심심려 오죽하실가
이곳내종은 매신기력대단 외환(外患)은 안계시나
일생감감 영일이 항소하시니
불초정위 낯출용여 박밍을 임하온듯
생택(生宅)에도 할머니계시나 수체후(體候) 매양감감
서일(曙日)271같이 오시니 두렵고 살들자에
오래지않아 여연을올어
한심하고 슬프오며 부모님께서서

억척심의하여 무림부강 하오나
 신관적패 겁박(劫迫)272없고 애탁탁전 몽매밖
 시외조부 생환통박(生還痛迫) 가이 없으며
 어머니는 낙낙외오 임종효(臨終孝)를 못하시고
 각색유한 못견뎌하신 존안(尊顏)을 차마뵈올바
 아니오며 도련님 다남매분 편치못해
 면면혈속 중난난 아오귀령 황낙모자
 이용이 암암그립고 사연은 괴괴무안(怪怪無顏)
 두아주머님 꿈같이 다녀간후
 달포막히니 복회층양 없을뿐
 얼마아니 가는동안 각택(各宅)에 계시니
 조석(朝夕)으로 빙지못하고 선친종생(先親從生)
 참이차로 인순을떠나 한순간도 한가이 모셔
 보지 못하여 낫부온하정 어느때나
 다시뵈고 여한(餘恨)을 풀어볼까
 날이 많을수록 낙막 복청이며
 쉬매의 사형제분 안식종종 기쁘오나
 신앙들 타점이 못되신줄 민박민박(憫迫憫迫)273
 사절택에도 층층분들 처음아니고 이사경영
 아마춘하간 떠나실듯 미리허우려 기막히고
 고란의 아주머님도 쉽게 회구(懷舊)274하실듯
 두루황낙 남산택 대소택 금안(今安)하시어
 원억(冤抑)275하신 동생을 몽매간 맞이하니
 한심느끼고 도동아주머님 죽동행차
 장구(長久)에 계시는듯 안서방택 원서난세
 일이 많을수록 진몽을 분간못해
 십팔년인세 초로(初老)같이 녹아진일
 원앙불상 명민인격(明敏人格) 더욱아깝고
 병중그쳐 양한유원 모를이
 송연불생 아주머님 소조가이없고
 다산도간 통신각택 무침이시고
 곽서방택 아직있는듯
 출등범사 일마다 흠할것없으나
 초연운액 불길심장 온전치 못한소문
 각별아연 한이고 워낙마는걸
 곽곽위모 품성에 매인일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내실때 대소액운을
 압압히 말연할때 그중적지 악극

자난 여자의별을 독당하기는 천정운명
이것이오
성곡아우님 귀녕(歸寧)276하여 꿈같이 다녀가시나
순후덕용(淳厚德容) 언제나 잊혀지지 않더이다
친신(親信)277을 종종하오나 일월(日月)이 오랏수룩
몹시새롭고 통곡하여 담사까지 맘잡고
복색(服色)은 여구(如舊)이나 속절없는
천추고새 원통슬프고 이십전실
모고여생 이리하고
문애탁신 한후에
내정벽역의 온갖풍파 적어친새 성양으로
불효막대 편부생전(偏父生前) 천고한(千古恨)을 끼치온일
절절죄탄 가슴가운데 웅결침침한 유한은
어느때나 신설(新設)하여 후천타일에 양당(兩堂)278을
똑바로 뵈오리오
이몸도 근근지존 만인의치수를
감수하오나 불길한명수를 생각함에
창탄오내랄 서흐난듯
하일하시에 죄명을괘탈하고
오륜(五倫)의 단합되어 고고지한을 풀어내어
백일명광을 남처럼대할까
불초심장을 뉘우쳐 애탄박힌 원한만맥이
서로웃쳐져 일분성염을 능히 알수없으리
존천박덕 명을보존한들
무엇에 영광이며 나의불효 천성(天性)에다
무상한 창천(蒼天)이 동시용납지 않으니
부양천지(俯仰天地)의 인자지명을 바랄 수 없어
존당(尊堂)279에끼친죄 만사처참 무석이고
설비의 유교를 속절없이 저버린바되어
구구(區區)280한 원한(怨恨)을 어느곳에 호소하고
이때바람은 미월(眉月)281야의 적적한생각
이십오년 지난일이 역력히밝아
촌정(寸情)을어이 탄식하며 떨어지는
안쉬 금할수없고 세상만사 잊어버림
소원이나 불효침죄될까 활난여성
강잉(強仍)282작위할뿐 구구소회(區區所懷) 부모동생
아무도 모르실듯 불민우인(不敏愚人)283이나
아이의 먹은마음 불효함은 삼가어이

조물이 싫어하고 창천(蒼天)284이 미워하여
 불측막심한 죄명을 천추만시(千秋晚時)285에 면할도리
 없어 나의죄는 오히려마땅
 신성한 부모의유체(遺體)286 나를 품수(稟受)287한바
 불효자로 주목을받아 만인의 욕을얻으니
 자연선행의 미찰일 두루두루 생각하며
 아무리 무식불통하고 불측한 심정인들
 여승하게 층두지회 가슴에 뭉쳐다가
 지필(紙筆)을 대하매 지상없이 기록이역불민
 바깥사돈 전성정 좌우로 나뉘어안자
 다과주선이 지사에 정분이 탐탐하고
 성화를 숙운하여 앙모(仰慕)288함이 구구하나
 여행의 매인몸이 불출규문(不出閨門) 습관으로
 산수가 종종하고 애각(涯角)289이 망망한데
 봉안상대 뜻을두어 세강말속(末俗)290 우리창생(蒼生)291
 인세변화(人世變化) 난측이라 만물화려 맞은부중
 타관(他官)292우접(寓接)293 생소하나 동기양가 상의되고
 이집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해후상봉
 신우유정 탐탐사의 삭왕삭여 몇날인가
 백년도 미족(未足)다가 인지소욕(人之所欲) 각각이라
 불완불급(不緩不急)294 환고작정 가련낙막(落寞)295
 우리정사 피차일반 악연창회(暢懷)296 측량(測量)못해
 광취(狂醉)297한 발자취가 존문(尊門)298을 다시찾아
 관관후의(厚意) 우리사형(舍兄)299 일야담락(談樂)300 더한후에
 악수작별 생적연기(年期) 우리들이 여신에중
 가지임에 낙지고날 다면하고 노정자유 (路程自由)
 행동으로 유산풍림을 도쳐마다 열람하여
 차시미흡 정사(情私)301를 터회하올 액조도하고
 다만삼시(霎時)302 행락이라 한순더할가 여겼더니
 불신다마 여의치못해 심한기탄 억지귀하고
 천만여위(餘威)303 사형우애 지극유정 이시고
 부송(付送)304식물 차마감사 도리어 미안하고
 타별사의를 흠앙(欽仰)305하오나 이때의 박정지행은
 무어라 발명할수없고
 이마저 서정이나마 통신코자 간절하나
 이곳단문 나중생의 밖으로나
 지나올뿐 일별(一別)306후 음신(音信)307이 요연하니
 무익공회(公會)308 마지아니 올까 마침지나쳐 행한다기에

두어자 부치오니 다아무려나 속기속내
유수지광(流水之光)309 어시호중 동일기한 여춘에
연일양위분 자주심려 신중체후(身中體候) 안녕하시고
괴롭지나 아니한지 무익양념은 경경불망이라
하일호풍에 지기지우 우리들이 새봄한낙에
미흡정회를 떨쳐내고
탐탐신우(耽耽信友)310 교정에만족 후기망연이나
영교(靈交)가311 환고단념해 경춘갱봉(更春更逢)312을
믿고 바라나이다
안항(雁行)313께서 때로는 봉렬상감중 안녕하신가
백옥하성(下誠)314 통분정탄 구곡에 어니여
은은한 성안뵈온바 매일염내의
상연못잊어 수요궁달과 인가화액이
역천스라 단지무억 금옥같은 귀한자녀길러
노경자손 되었으나 남속뜻이나 설치하고
좋은소식 피차전하기 그만그만
슬전관중 영운(令胤)315 시내외분 처신골몰중
평안귀부 그러함 어비생하신줄
존택여운과 현형(賢兄)316시 융융(融融)317자복 하였으며
깃차여어 종반(宗班)평운 화기애어 없아온지
면면보은(面面報恩)318 옥면암암(玉面暗暗)319 하오며 그밖종완
재종(再從)320들이 안녕하신지 두루양모(仰慕)
친안열락(親安悅樂) 하시어 시이신정사 나즉하신가
연사고액 퇴로덕 설미덕 식술안락한지
사리로 개별하오이다
이곳사우 동생은 편지(便紙)개역 이만아니고
여전이 일양든든 하오나 액여과세
능정완정못해 십칠년의 웅망지욕
명가호문의 일등가량(佳良)을321 택망하오나
신우지가의 문호도 초술심난 하오이다
이밖두루 무침타못해 노형은 사삭낙때
위황한경 생과생하 심우민망 액세지가
상봉하술 번호중 허다의상 안면트니
저근덧 어려우니 두루두루 창심요통
석조심심이 질부치위 골몰
능당선미 아람화순 지덕만모(知德萬貌)322 사랑하고
중시네 자복(子福)을 기뻐하며 악증차차
그근괘경 요사이는 내외일실 화기(和氣)하고

유관하나 애연(哀然)하다
동생분 산전조심 되오며 각처매신과
친문(親問)323아득 팔순편친 조모(朝暮)지연 기쁘오며
하실말씀 산적(山積)이오나 단문오자 낙서되어
이만그치고
내여망은 귀술(貴率)324안녕과 다시 상봉하는일
형주전동서 하렵하고
참봉택삼동서 같이보아
사월망간(望間)325 상봉을 가위맞추듯 하고와서
마침 기시(其時)326에 왜관(倭館)327땅 불일있어
사월십삼일 왜관을가니
팔십이세 종고모가 슬하자식 명색없이
노경(老境)참통중 나를만나 잠시회포 감추지못해
가기말여 구구처없이 칠일만에
로해누리고 형주가 오시더라도
혹십여일은 계시니 만나기를
넉넉무여 할줄알고 놀다가보니
뜻밖에 서회통이 삭발사경을 치고와서
들어가니 형님이오 섰던줄과 누차간절
찾았거든 소문아연낙심 어찌다 형언(形言)할까
꿈을꾸어도 단정경물 잊지를 못하나니
정사가 만번무한해 다시만날 인연이
이다지 소활할줄 어찌 뜻할바리요
천금백위(千金百位)328를 놓친들 이보다 더하오며
친형제 찾아온들 이보다 더나을까
가석가탄(可惜可嘆) 멧가지로 난란애색 진정못해
진작에도 생겨나 속죄하고 싶으나
친동으로 미친듯이 만사가 급급하게
지나올뿐 각색쇠들 지생탐통 억지부려
환두까귀 반편을 쓰지못해 잡아둘수없어
아직늦어 참고참아 섭섭해
사무정 무애자가 되고보니 차역불행
명수에 첨부한흥쇠(興衰)는 하일하시에
성안(聖顔)을 다시뵈어 남은정회를 전달할까
수월전 참봉택 다정하신 수찰(手札)329과
진사형님 필적받아 탐탐신기 반가워라
과연 형용치못해 온아단정한 기상(氣像)과
성즉통명330한 심부가지 생의유리한듯

다시숙시(熟視)331하나 매번허사고
경경(耿耿)332 행모(行暮)333에 그치오며 이때 중하(仲夏)334를맞아
진사형님 내외분 연심귀후 대단하여 순절이나
없으신가 요통(腰痛)매양 불평하심 애탁무리 하지못해
오라버님 출입도 희소(稀少)하신대 이번못뵈어
애닦고풍후 유덕한존안 일생일같이
지내나이다
참봉형님 쇠모기강 이가운데 왕환(往還)335이며
구십편친 생리사별(生離死別) 더구나 손상여환
익사오셔 침수여전 효자현부(孝子賢婦) 지성감지
봉효(奉孝)로 강건(剛健)하고
참봉댁 삼내외분 호대심려중 안녕하시며
갓집사람 온유혜질(溫柔惠質)336로 조석진되지절 눈에보이고
그모친 평안하온가 두루본인정 궁금하고
어머니내외 골물중 평안태기 있으신가
유순부덕(柔順婦德)337심성 불망이오며
섭오평길 확실한가 풍수재화 귀중하고
사랑한마음 총양못감아
나는입학해 본가로보면 과거나 할것이오나
기세(氣勢)로보면 상당한일이라
조박이 분명하듯 완아종형제 물양(撫養)한가
화용옥질(花容玉質)338요 두새댁안신(安信)339 자주로 드나들고
정호형님 그날이고 무침인가 색색궁금
다원댁 서가정 당연쉬워
귀자녀모재미있는소식 열락(悅樂)340에 그침이 없으신가
초세(超世)한 재질언변(才質言辯) 오매(寤寐)에 잊지못해
무가서차 울천편을 쓰지못하고
나작피운 인지의 염가지로 침노샌듯 하였거늘
자기내모를 무미알듯 영실안부 들었기에
가득한 소처에 저하나 흡족지못해
그마음 알려함이 이같으며 출인한자적
이번못만나 유감이고 말택간후
소문들었는가 인생세간 이합(離合)이
무상함은 떼뜻한일이나
당시 수탄키는 그도또한 난감한일이고
이런차에 안밖일 생성치못해 시종괴롭고
큰머느리 기다리던 대기칠삭 유관하고
수하자식들 무고한데 큰아이 삼월상경(上京)

아직미환 못잊혀져 동기종반(宗班)341 무연든든
 자부(子婦)의 초산(初産)이 늦어져 걱정이오며
 셋째며느리 모여소식 달포격조(隔阻)342 그림사오며
 손교형제 무양총혜 기절립든 아니하고
 주사댁 총절일 안에서일 생측석하니
 떳떳지못해 성중출입 도회(都會)활동 자주못 만나
 이는아마 손자불점 있는듯
 다행히도 서간(書簡)은 설역이오니 석일훤혁(烜赫)343 가정이
 삼분사연 지원극통 수소동기도
 사생간 허다하게 그린회포
 장에창금이 섯돌고 선인맥□은 한국할기회못얻고
 연하오니 앙천장우(長吁)344의 차하인재리오
 유유(悠悠)345한 포한이 골수의 맺혀있는들
 무엇에 소용있으리요
 웅문(雄文)346기벽(氣癖)347의 사나이기품 우리왕왕(往往) 노새
 천고하신 우리선인 높고깊은 자애(慈愛)로움
 유명이 몇말이건대 이같이 음우(陰佑)348하지 아니하여 문호(門戶)의 창성(昌盛)함이 이리도 심하던가
 이번에 그곳에가 형주내 행락(行樂)을보니
 일편탄복과 감구지심(感舊之心)이
 명출아모려나
 천지무궁 강능무하 지수와 자손창성
 식낙만동으로 누리시기를 특수하나이다
 왜관의 종고모 소처(所處)는 한심하나
 두덜아자미 가득히 머나먼 우리백형(伯兄)
 원통하고 서러운일 막상기나 하실런지
 참봉형제 이쪽길 있거든 이매우한하고
 사람찾으면 상대를 설명할가
 하나이다
 형주요 가사하나 만들기는 미난(未難)이나
 당금의 형주는 애덕(愛德)이 겸전하고
 때는 달성일우의 분수없는 처지이나
 상대자가 못되어 이내말을 정할것없어
 평생의 소창(消暢)349이 궁담(窮談)은 싫어하여
 차차로 존명을불봉함 미안막심 이오니
 용서하시기 바라나니
 죽기전 내친가로 알리고서 사나자주아연
 현형(賢兄)350이여 나중예나를 저버리지 아니리라
 숙부님께 문안드리고 미거한몸 존전입문하여

층대분 후은자애(厚恩慈愛)351를 받들고 숙부님께서
귀령(龜齡)352하여 몇날며칠 유연(留然)353도 아니하고
홀홀이 떠나신후 어느덧 삼삭(三朔)354이라
이런때에 문후(問候)도 처연하여 죄송하다
풍측광음은 홀홀하여 이때에 아버님회신
박두하니 망극새롭고 지원통곡(至冤痛哭)355 슬푸도다
모두모여 오시기를 기대하나 의연하다
할머님 용연체력 숙환(宿患)으로 매양감감 침석(寢席)에
위와하심 차차로 복상되어 만위강녕 하시어
택중경여(宅中慶餘) 나즉하셨는가
간절복모(伏慕)356 구구하옵고 숙부모님 양위분
허다한심려 신중(身中) 안녕하시어 숙침(熟寢)등호
여전히 만강(萬康)이신가 무익복염 간축(懇祝)하고
귀중 아가씨 다남매분 평안(平安)하고
대택(大宅)에도 어머님 귀후 만안(萬安)하---

[각주]

- 1) 심규(深閨) : 여자가 기거하는 깊숙하게 들어앉은 방이나 집.
- 2) 삼종법(三從法) : 삼종지의(三從之義)
- 3) 태산앙망(泰山仰望) : 부모님의 은덕이 태산처럼 높아 자식들은 이를 항상 우러러봄.
- 4) 오복(五福)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 복.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을 이룸.
- 5) 구로생아(劬勞生牙) : 나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의 수고.
- 6) 고소지망(高所志望) : 높은 곳을 뜻하여 바람.
- 7) 은사근사(隱事勤事) : 숨겨두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에 힘을 씬.
- 8) 완명(頑命) :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 있는 목숨.
- 9) 조선봉사(祖先奉祀) : 조상님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0) 택서(擇壻) : 사윗감을 고름.
- 11) 종인(從人) : 시중드는 사람.
- 12) 훌훌 : 재빨라서 붙잡을 수가 없음.
- 13) 연광(年光) : 나이.
- 14) 연광오순(年光五旬) : 나이가 오십에 이룸.
- 15) 만사여생(萬死餘生) :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 살게 됨.
- 16) 촉처(觸處) : 가서 부딪치는 곳.
- 17) 타문(他門) : 다른 성씨.
- 18) 진외가(陳外家) : 아버지의 외가.
- 19) 밀성(密城) : 현재의 밀양. 밀양박씨.
- 20) 복지(卜地) : 복거(卜居), 좋은 땅을 찾아서 살 곳을 정함.
- 21) 창대문호(暢大門戶) : 드나드는 문이 크게 열림.
- 22) 방외낙국(方外樂國) : 세속 밖의 좋은 나라
- 23) 기탄(忌憚) : 꺼리거나 어려워 함.
- 24) 을묘(乙卯) : 작품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干支로 서기 191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25) 숙질남매(叔姪男妹) : 숙질은 아저씨와 조카. 오촌 남매.
- 26) 조화난측(造化難測) : 천지자연의 이치를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움.
- 27) 열국인물(列國人物) : 여러 나라의 인물.
- 28) 소조(蕭條) : 호젓하고 쓸쓸함.
- 29) 경산(慶山) : 대구에 연접한 지명.
- 30) 청도(淸道) : 대구 인근의 지명.
- 31) 교마(轎馬) : 가마와 말.
- 32)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 삼가게 함.
- 33) 관곡(款曲) : 정답고 친절함.
- 34) 지면(紙面) : 편지.
- 35) 적조(積阻) : 오랫동안 소식이 막힘.
- 36) 참망(僣妄) : 참람하고 망령됨, 분수를 모르고 건방짐.

- 37) 존안(尊顏) : 상대의 얼굴.
- 38) 강강(康強) : 몸이 건강하고 굳셈.
- 39) 영결(永訣) : 영원한 이별.
- 40) 몽매(夢寐) : 잠을 자면서 꿈을 꿈.
- 41) 영낙고사 : 틀림없이 옛일이 됨.
- 42) 부생(浮生) : 덧없는 인생.
- 43) 긴착(緊着) : 긴요하고 절실함.
- 44) 일면여구(一面如舊) : 처음 만났으나 오래 사귄 것처럼 친밀한 경우.
- 45) 다과주찬(茶菓酒饌) : 다과와 술과 안주.
- 46) 축일담화(逐日談話) : 날마다 이어지는 이야기.
- 47) 모웃개걸 : 옷놀이.
- 48) 춘복춘수(春服春愁) : 봄날의 시름.
- 49) 구양수(歐陽脩) : 중국 북송 때의 시인 학자, 호는 취옹(醉翁).
- 50) 풍회무우(風懷無憂) : 풍치있는 정회 때문에 근심이 사라짐.
- 51) 증점(曾點) : 공자의 제자, 증참의 아버지.
- 52) <춘야연 도리원 서(春夜宴 桃李園 序)> : 이백의 시 제목.
- 53) 이청연(李靑蓮) : 성당 때의 시인 이백, 자는 태백,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 54) <赤壁賦> : 소동파(소자첨)가 임술년 가을 7월 기망일(16일)에 손님과 적벽 아래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내용의 문장.
- 55) 불출규문(不出閨門) : 문을 굳게 닫고 나아가지 않음.
- 56) 유벽승리(有碧勝地) : 푸르름 가득한 아름다운 경치.
- 57) 소요대 : 누정의 이름인 듯.
- 58) 역력(歷歷) : 또렷하고 분명하게.
- 59) 화수(和酬) : 남이 보내온 시나 노래에 화답하여 다시 보냄.
- 60) 감구지회(感舊之懷) : 지난 날을 생각하는 회포.
- 61) 만화방창(萬化方暢) : 따뜻한 봄날에 온갖 물건이 나서 자람.
- 62) 가려(佳麗) : 자연의 풍경 등이 아름답고 새뜻함.
- 63) 절승(絶勝) : 경치가 아주 뛰어나게 좋음.
- 64) 장강활수(長江活水) : 넓고 큰 강에 흐르는 물.
- 65) 낙양(洛陽) :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도시.
- 66) 두자미(杜子美) : 두보(杜甫), 이백과 더불어 성당의 최고 시인.
- 67) 이태백(李太白) : 이백.
- 68) 삼경사서(三經四書) : 시경, 서경, 역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 69) 별승지(別勝地) :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 70) 도수장도(徒手壯途) : 맨손으로 용감하게 떠나는 장한 길.
- 71) 경일망귀(頃日望歸) : 지난 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함.
- 72) 대작순배(對酌巡杯) :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대로 돌림.
- 73) 단구(短晷) : 짧은 해, 짧은 낮.

- 74) 유순부덕(柔順婦德) :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유순하고 어지러운 덕행.
- 75) 영오(穎悟) : 총명하고 이해가 빠름.
- 76) 주소(晝宵) : 밤낮.
- 77) 효우돈목(孝友敦睦) :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화목함.
- 78) 운빈화안(雲鬢花顏) :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 79) 월국항아(月國姮娥) : 달나라의 선녀.
- 80) 평포(平鋪) : 평평하게 펴 놓음.
- 81) 육산주해(肉山酒海) : 고기가 산을 이루고 술이 바다를 이룸.
- 82) 환천희지(歡天喜地)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83) 낭랑(朗朗) : 소리가 매우 맑고 또랑또랑함.
- 84) 쇠락(衰落) : 말라 떨어짐.
- 85) 원포(園圃) : 과수나 채소 따위를 심는 밭.
- 86) 소열황제(昭烈皇帝) : 촉한의 제1대 황제로 즉위했던 유비를 이룸.
- 87) 화도(畫圖) : 여러 종류의 그림을 통틀어 이룸.
- 88) 우화등선(羽化登仙) : 도교에서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감을 이룸.
- 89) 지란(芝蘭) 지초와 난초, 지란지교 : 벗 사이의 맑고 높은 사귄.
- 90) 수창(酬唱) : 시가를 읊어 서로 주고 받음.
- 91) 삼생(三生) : 불교에서 이르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후생(後生).
- 92) 난정고사(蘭亭古事) : 왕희지의 <蘭亭序>에 이르기를 "봄에 난정에서 사악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목욕재계를 한다"라고 하였음.
- 93) 양두(讓頭) : 지위를 남에게 물려줌.
- 94) 보보전진(步步前進) :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
- 95) 자질내례(子姪來禮) : 아들과 조카가 예를 갖추고 옴.
- 96) 선풍도골(仙風道骨) : 선인의 풍모와 도사의 골격이란 뜻으로 남달리 뛰어난 풍채를 이룸.
- 97) 관곡(款曲) : 매우 정답고 친절함.
- 98) 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다는 뜻으로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님.
- 99) 성덕(盛德) : 크고 높은 덕.
- 100) 주효(酒肴) : 술과 안주.
- 101) 낭자(狼藉) : 물건 따위가 마구 흩어져 있어 난잡함.
- 102) 작반(作伴) : 길동무로 삼음.
- 103) 사기점(沙器店) : 사기그릇을 구워 만드는 곳. 사기전.
- 104) 월영(月影) : 달의 그림자.
- 105) 일역(日域) : 태양이 비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왕이나 황제의 치덕이 미치는 나라 또는 천하.
- 106) 단청(丹青) : 궁궐이나 사찰 등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림.
- 107) 휘황(輝煌) : 눈부시게 빛남.
- 108) 석가래(釋迦來) : 석가모니 여래의 줄임.
- 109) 파사진경(破邪進慶) : 사악한 생각을 떨치고 좋은 일을 맞이함.
- 110) 이목 :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곧 이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 111) 지점(指點) :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임.
- 112) 견훤(甄萱) : 후백제의 초대 왕.
- 113) 달포 : 한 달 이상이 되는 동안.
- 114) 천령(薦靈) : 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재(齋)나 불공을 올리는 일.
- 115) 유수쟁화(流水爭話) : 유창한 말솜씨로 논쟁을 함.
- 116) 완객(玩客) : 세상 일을 이야기 하며 즐기는 사람들.
- 117) 이향(異鄉) : 낯선 고향, 타향..
- 118) 별구처(別區處) :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 119) 지기지우(知己之友) : 자기를 잘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
- 120) 작반(作伴) : 길 동무로 삼음.
- 121) 소창(消暢) : 답답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
- 122) 빙옥지결(氷玉至潔) : 얼음이나 옥처럼 맑고 깨끗하여 아무 티가 없음을 비유.
- 123) 청개(淸蓋) : 푸르름으로 덮여 있음.
- 124) 두견화(杜鵑花) : 진달래꽃.
- 125) 만개반소(滿開半燒) : 붉은 꽃이 활짝피어 불에 타는 듯함.
- 126) 적상심회(積傷心懷)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근심.
- 127) 분수작별(分手作別) : 서로 악수하고 헤어짐.
- 128) 사업(事業) : 대를 이음.
- 129) 상봉정담(相逢情談) : 서로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눔.
- 130) 봉착(봉착) : 맞닥뜨림.
- 131) 창망(滄茫) : 넓고 멀어서 아득함.
- 132) 호산(胡算) : 중국에서 수효를 기록할 때 썼던 부호.
- 133) 낭랑(朗朗) : 빛이 매우 밝음.
- 134) 소소(蕭疏) : 가끔 드문드문 일어남..
- 135) 소연(騷然) : 시끄럽고 어수선 함.
- 136) 고고(苦苦) : 불교에서 이르는 삼고(三苦:苦苦, 壞苦, 行苦)의 하나.
- 137) 성훈(聖訓) : 성인이나 임금의 교훈.
- 138) 성덕구택(成德舊宅) :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집에서 덕을 닦아 큰 인격을 이룸.
- 139) 천원(天元) : 만물이 자라는 근원.
- 140) 귀가(歸嫁) : 여자가 시집으로 돌아감.
- 141) 취수(聚首) : 머리를 맞대듯이 가까이 모여 앉음.
- 142) 신소한풍(汛掃寒風) : 물을 뿌리고 깨끗이 쓸어내는 듯한 맑은 바람.
- 143) 소삼(蕭森) : 바람이 불어 마음이 쓸쓸함.
- 144) 성경(誠敬) : 정성스러움과 공경스러움.
- 145) 면면홍중(綿綿胸中) : 가슴속에 끊어지지 않고 죽 이어져 있음.
- 146) 감창지회(感愴之懷) : 비창한 심회.
- 147) 신신찬란(新新燦爛) : 새롭고 싱싱하고 눈이 부시게 아름다움.
- 148) 천수만복(天壽萬福) :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려는 큰 복을 가짐.

- 149) 문수(文殊) : 문수보살의 준말.
- 150) 후품성덕(厚品盛德) : 순후한 품성과 크고 높은 덕.
- 151) 평신(平信) : 특별한 용무가 아닌 보통의 편지.
- 152) 경경(耿耿) : 잊혀지지 않고 늘 걱정이 되는 모양.
- 153) 천고추월(千古秋月) : 오랜 세월동안 밝게 빛나는 가을의 달.
- 154) 기대첨망(期待瞻望) : 기대하는 바를 아득히 바라보거나 높은 데를 바라봄.
- 155) 사행지회(私幸之懷) : 자기의 다행함을 겸손하게 이룸.
- 156) 존당(尊堂) :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의 어머니를 일컬음.
- 157) 전전공공(戰戰兢兢) : 매우 두려워하며 조심함.
- 158) 동동촉촉(洞洞燭燭) : 공경하고 삼가서 매우 조심함.
- 159) 안쇳 :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안으로 들어간 조각.
- 160) 사장(查長) : 사돈집의 웃어른.
- 161) 수태(愁態)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심에 잠기는 모습.
- 162) 경여(慶餘) : 남은 경사.
- 163) 존후(尊候) : 상대방을 높이어 그의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
- 164) 후품자의(厚品慈意) : 성품이 순후하고 생각이 자애로움.
- 165) 조유(詔諭) :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깨우침.
- 166) 경경(耿耿) : 잊혀지지 않고 늘 염려가 되는 모양.
- 167) 안생(安生) : 아무 탈없이 편하게 삶, 또는 그런 생활.
- 168) 울울(鬱鬱) : 마음이 매우 답답함.
- 169) 만첩(萬疊) : 아주 여러 겹.
- 170) 겁겁(劫劫) :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없음, 급급.
- 171) 소요담락(逍遙湛樂) : 마음 내키는 대로 슬슬 거닐며 다님.
- 172) 회구(懷舊) : 회고(懷古).
- 173) 수란(愁亂) : 시름이 많아 마음이 산란함.
- 174) 아연작별(俄然作別) : 급작스러운 이별.
- 175) 애련섭섭 : 애처롭고 가엽고 섭섭함.
- 176) 적요(寂寥) : 적막하고 고요함.
- 177) 첨망(瞻望) : 아득히 바라보거나 높은 데를 바라봄.
- 178) 현구고(見舅姑) : 신부가 폐백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는 일.
- 179) 구속광음(球速光陰) : 빠른 세월.
- 180) 만사연생(萬死餘生) :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 살게 된 목숨.
- 181) 감창(感愴) : 느낀고 비창함.
- 182) 온양(醞釀) : 술을 담금.
- 183) 연심(年深) : 나이가 많음, 연로.
- 184) 성우(聖佑) : 은총.
- 185) 범연(汎然) : 속박받지 아니함, 대범스러움.
- 186) 임술(壬戌) : 1922년.

- 187) 해후봉착(邂逅逢着) : 서로 만남.
- 188) 세세난측(世世難測) : 대대로 헤아리기 어려움.
- 189) 사형(舍兄) : 남과 말할 때 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일컬음, 형이 아우에 대하여 자기를 일컬음.
- 190) 순삭(旬朔) : 초 열흘과 초 하루.
- 191) 체상가력(體狀氣力) : 몸의 상태와 기력.
- 192) 절물(節物) : 철을 따라 나는 물건.
- 193) 완장(阮丈) : 남의 삼촌을 이르는 말.
- 194) 주야축수(晝夜祝手) : 밤낮으로 두 손을 모아 빔.
- 195) 수순(數旬) : 수십 일.
- 196) 경신(庚申) : 1920년.
- 197) 귀문(貴門) : 지체가 높은 집안, 상대방을 높이어 그 집을 이룸.
- 198) 균안(均安) : 두루 평안함.
- 199) 연기미령(年期靡寧) : 연한을 정해 놓지 않음.
- 200) 서낭(婿郎) : 남을 높이어 그의 사위를 일컫는 말.
- 201) 옥골영풍(玉骨英風) : 살빛이 희고 고결하여 영웅과 같은 품채.
- 202) 만면진취(滿面進就) : 얼굴에 가득한 적극적인 자세.
- 203) 재화(才華) : 씩 좋은 재주.
- 204) 유관(遊觀) : 돌아다니면서 구경함.
- 205) 만화방창(萬化方暢) : 봄이 되어 만물이 한창 자라남.
- 206) 참요(讖謠) : 예언이나 은어의 형식으로 나타난 노래.
- 207) 경달(驚怛) : 부모나 가까운 집안의 어른의 부고를 받고 깜짝 놀람.
- 208) 농장(弄璋) : .
- 209) 환택(還宅) : 어른을 높이어 그의
- 210) 만실보화(滿室寶貨) : 집안 가득한 보물.
- 211) 여망(餘望) : 앞날의 희망.
- 212) 천만원축(千萬願祝) : 간절히 바라고 빔.
- 213) 세사난측(世事難測) : 세상사를 헤아리기 어려움.
- 214) 단문소치(短文召致) : 상대를 초청하기 위한 짧은 문장.
- 215) 일양만중(一樣萬重) : 한결같이 기력이 매우 왕성함.
- 216) 신중평안(身中平安) : 신체의 상태가 매우 평안 함.
- 217) 농장(弄璋) : 아들을 낳음.
- 218) 현문(懸門)복가(福家) : 현달하고 복된 가문.
- 219) 박근(迫近) : 정한 날짜가 바짝 다가와 가까움.
- 220) 촌탁(村度) :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
- 221) 장대기풍(壯大氣風) : 체격과 기풍이 매우 크고 튼튼함.
- 222) 진숙(振肅) : 쇠한 것을 복돋우고 느즈러진 것을 바짝 단속함.
- 223) 질둔(質鈍) : 투미하고 둔박함, 몸이 뚱뚱하여 동작이 굼뚱.
- 224) 내두(來頭) : 다가올 앞날, 장래.

- 225) 동경(憧憬) : 마음에 두고 애뜻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 226) 안산(安信) : 안부를 묻는 편지.
- 227) 삭삭(數數) : 자주자주.
- 228) 편친시하(偏親侍下) : 한쪽 부모만을 모시고 있는 처지.
- 229) 청송(靑松) : 현재의 경상북도 청송군.
- 230) 미망귀인(未亡貴人) :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은 여인.
- 231) 만금손아(萬金孫兒) : 아주 귀한 손자.
- 232) 골절(骨節) : 뼈마디.
- 233) 분분(忿憤) : 분하고 원통하게 여김.
- 234) 앙앙(怏怏) : 불평 불만이 있어 마음이 새뜻함.
- 235) 망부지한(亡夫之恨) : 남편과 사별한 회한.
- 236) 질둔(質鈍) : 투미하고 둔박함.
- 237) 무안참괴(無顏慙愧) : 몹시 부끄러워 볼 낮이 없음.
- 238) 참색무안(慙色無顏) : 몹시 부끄러워 볼 낮이 없음.
- 239) 전전불망(輾轉不忘) :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잊지 못함.
- 240) 현매(賢妹) : 어질고 다정한 자매간.
- 241) 창연(愴然) : 몹시 슬퍼함.
- 242) 성안(聖顏) : 고귀한 사람의 얼굴.
- 243) 삼춘화접(三春花蝶) : 봄 석 달 간의 꽃과 나비.
- 244) 자황(雌黃) : 시문을 첨삭하거나 변론 및 시비를 가리는 일.
- 245) 옥부방용(玉膚芳容) : 옥과 같이 희고 아름다운 상대방의 용모를 높여 이름.
- 246) 빙자혜질(氷姿惠質) : 얼음같이 희고 고운 살결을 가진 미인.
- 247) 만행(萬幸) : 천만다행.
- 248) 능문(能文) : 글에 능함.
- 249) 묵상(默想) : 말없이 조용히 생각함.
- 250) 참괴(慙愧) : 몹시 부끄러워 함.
- 251) 일면지분(一面之分) : 평소 얼굴을 본 적이 없음.
- 252) 앙모불망(仰慕不忘) : 우러러 사모하며 잊지 못함.
- 253) 우수돌탄(憂愁咄嘆) : 근심과 걱정으로 혀를 차며 탄식함.
- 254) 척당(戚黨) : 척속(戚屬)-친족이 아닌, 성이 다른 친척.
- 255) 포석(布石) : 일의 장래를 위하여 미리 손을 씌.
- 256) 수운(愁雲) : 수심에 찬 기색.
- 257) 속맥(菽麥) : 속맥불변-콩과 보리를 구별 못함,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비유.
- 258) 권권(拳拳) : 정성스럽게 지킴, 공경하여 삼가는 모양.
- 259) 귀녕(歸寧) : 근친(覲親)-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아버이를 뵈.
- 260) 병진(丙辰) : 1916년.
- 261) 구구(區區) : 잘고 구차함.
- 262) 발명(發明) : 말하여 밝힘.

- 263) 구변(口辯) : 말솜씨, 언변.
 264) 관홍(寬弘) : 넓고 관대한 마음.
 265) 회인(懷人) : 마음에 있는 사람을 생각함.
 266) 유잉(有孕) : 여자가 아이를 잉태함.
 267) 삭포(朔布) : 임신 초기.
 268) 임삭(臨朔) : 임산부가 해산달을 맞이함, 아이 낳을 달이 닥침.
 269) 탄복(歎服) : 깊이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
 270) 무양(撫養)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펴 기름, 무육(撫育).
 271) 서일(曙日) : 이른 새벽.
 272) 겁박(劫迫) : 위력으로 협박함.
 273) 민박(憫迫) : 근심이 닥쳐옴.
 274) 회구(懷舊) : 옛일을 돌이켜 생각함, 회고(懷古).
 275) 원억(冤抑) : 원통함을 억누름.
 276) 귀녕(歸寧) :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아버이를 뵈, 근친(覲親).
 277) 친신(親信) : 몸소 써 보낸 편지.
 278) 양당(兩堂) : 남을 높이어 그의 부모를 일컫는 말.
 279) 존당(尊堂) : 상대방을 높이어 그의 어머니를 이름.
 280) 구구(區區) : 자잘한 여러 가지.
 281) 미월(眉月) : 눈썹같이 생긴 초승달.
 282) 강잉(強仍) : 마지못하여 그대로 함.
 283) 불민우인(不敏愚人) :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284) 창천(蒼天) : 맑게 갠 새파란 하늘.
 285) 천추만시(千秋晚時) : 태고 적부터 먼 장래까지.
 286) 유체(遺體) : 부모가 남겨준 몸이라는 뜻으로 자기 몸을 이름.
 287) 품수(稟受) : 선천적으로 타고남, 품부.
 288) 양모(仰慕) : 우러러 사모함.
 289) 애각(涯角) :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290) 말속(末俗) : 어지럽고 타락한 풍속.
 291) 창생(蒼生) : 세상의 모든 백성.
 292) 타관(他官) : 타향, 타고을.
 293) 우접(寓接) : 남 앞에서 자기의 주거를 낮추어 이름.
 294) 불완불급(不緩不急) :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음.
 295) 낙막(落寞) : 호젓하고 쓸쓸함.
 296) 창회(暢懷) : 맺혔던 가슴속을 헤쳐서 시원하게 함.
 297) 광취(狂醉) : 몹시 술에 취함.
 298) 존문(尊門) : 남의 가문을 높이어 이름.
 299) 사형(舍兄) : 남에게 자기 형에 대한 경칭, 형이 아우에 대해 자기를 일컬음.
 300) 담락(談樂) : 즐거운 이야기.

- 301) 정사(情私) : 친족사이의 사사로운 정.
- 302) 삼시(霎時) : 아주 짧은 시간.
- 303) 여위(餘威) : 무슨 일을 해낸 뒤의 위세, 조상이 남긴 위광.
- 304) 부송(付送) : 물건을 부쳐 보냄.
- 305) 흠앙(欽仰) :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함.
- 306) 일별(一別) : 한 번 헤어짐.
- 307) 음신(音信) : 먼데서 전하는 소식, 편지.
- 308) 공회(公會) : 공적인 일로 갖는 모임, 공개로 하는 회의, 공중의 모임.
- 309) 유슈지광(流水之光) : 세월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나옴.
- 310) 탐탐신우(耽耽信友) : 믿음이 가는 친구와 매우 즐겁게 노는 것.
- 311) 영교(靈交)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과 정신적으로 교제함.
- 312) 갱봉(更逢) : 다시 만남.
- 313) 안항(雁行) : 남의 형제를 높여서 이르는 말.
- 314) 하성(下誠) : 웃어른에 대하여 자기의 정성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315) 영윤(令胤) : 남의 아들을 이름, 영식(令息).
- 316) 현형(賢兄) : 편짓글 등에서 벼슬 높여 일컫는 말.
- 317) 융융(融融) : 화평한 기운.
- 318) 면면보은(面面報恩) : 저마다 제각기 은혜에 보답함.
- 319) 옥면암암(玉面暗暗) : 옥면이 잊혀지지 않고 가물가물 보이는 듯함.
- 320) 재종(再從) : 육촌 형제간의 사이.
- 321) 가량(佳良) : 아름답고 착함.
- 322) 지덕만모(知德萬貌) : 지덕을 갖춘 온갖 용모.
- 323) 친문(親問) : 몸소 안부를 물음.
- 324) 귀솔(貴率) : 상대 집안의 식솔.
- 325) 망간(望間) : 음력 보름께.
- 326) 기시(其時) : 그 때.
- 327) 왜관(倭館) : 경상북도 칠곡군의 읍(邑).
- 328) 천금백위(千金百位) : 매우 큰 재산과 높은 지위.
- 329) 수찰(手札) : 손수 쓴 편지.
- 330) 성즉통명(姓卽通名) :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과 이름을 알려줌.
- 331) 숙시(熟視) : 눈여겨 자세히 봄.
- 332) 경경(耿耿) : 잊혀지지 않고 늘 걱정이 됨.
- 333) 행모(行暮) : 길을 가다 날이 저옴.
- 334) 중하(仲夏) : 한 여름, 음력 오월.
- 335) 왕환(往還) : 갔다가 다시 돌아옴.
- 336) 온유혜질(溫柔惠質) :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은혜로운 기질.
- 337) 유순부덕(柔順婦德) :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화평하고 온순한 성품.
- 338) 화용옥질(花容玉質) :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에 꾸미지 아니해도 옥처럼 아름다운 기질.

- 339) 안신(安信) : 안부를 여쭙는 편지.
- 340) 열락(悅樂) : 기뻐하고 즐거워함.
- 341) 종반(宗班) : 성씨가 같은 겨레붙이.
- 342) 격조(隔阻) :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끊김.
- 343) 환혁(烜赫) : 빛나고성한 모양.
- 344) 장우(長吁) : 긴 탄식.
- 345) 유유(悠悠) : 아득하게 멀다.
- 346) 웅문(雄文) : 기개가 뛰어난 힘찬 문장.
- 347) 기벽(氣癖) : 남에게 지거나 굽히지 않으려는 성질.
- 348) 음우(陰佑) : 남몰래 도움.
- 349) 소창(消暢) : 답답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
- 350) 현형(賢兄) : 벗을 높여 부름.
- 351) 후은자애(厚恩慈愛) : 두터운 은혜와 사랑.
- 352) 귀령(龜齡) : 거북의 나이, 장수를 이름.
- 353) 유연(留然) : 머무름.
- 354) 삼삭(三朔) : 석 달.
- 355) 지원통곡(至冤痛哭) : 더없이 원통하여 통곡함.
- 356) 복모(伏慕) : 웃어른을 공손히 사모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